

---

碩士學位論文

# 崔孤雲說話의 樣相과 小說化 過程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指導教授 金 榮 敦

玄 丞 桓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85年 12月

# 崔孤雲說話의 樣相과 小說化過程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指導教授 金 榮 敦

玄 丞 桓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5年 12月

玄丞桓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5年 12月

---

# THE STYLE AND CONTENT OF THE CHE KOH-UN NARRATIVES AND NOVELIZATION

**Seung-Whan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5

# 目 次

Summary .....	1
I. 序 言 .....	3
1. 問題의 題起 .....	3
2. 研究方法 .....	5
II. 崔孤雲說話의 樣相 .....	7
1. 時代的 背景 .....	7
2. 說話의 類型 .....	8
1) 說話의 類型과 分布 .....	8
2) 說話 發祥地 .....	19
3. 原型說話 .....	22
1) 英雄誕生說話 .....	23
2) 破鏡奴婚姻說話 .....	27
3) 入唐說話 .....	27
4) 證據物 提示 挿話 .....	29
III. 崔孤雲說話의 小說化 過程 .....	31
1. 傳記的 背景 .....	31
2. 小說의 形成時期 .....	33
3. 小說化 過程 .....	34
IV. 結 語 .....	45
資 料 .....	46
參考文獻 .....	47
〈附 錄〉 崔문장 .....	50

---

## Summary

### The Style and Content of the Che Koh-un Narratives and Novelization

In this thesis Che Koh-un narratives and novelization were studied. The phrases of his narratives were understood and the process of making novels out of his narratives researched.

In the second chapter, the phrases of his narratives were observed. His narrative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patterns as the transmissive countries. Also the cradle and shifting phrases of his narratives were researched by analyzing his birth narrative.

Che Koh-un was born in Chang-won, Gyung Sang Nam Do, and spent his youth in Gyung-ju during a growth period. The story of his lifetime was handed down to the natives of his birthplace. In Gyung-ju his life's narratives was gradually changed.

His narratives were divided into the birth period, the growth period, the period when he entered Tang and the later period as biographical patterns.

The birth period was composed of three episodes. In the growth period, he wrote the pattern of folktale which a servant get married with his master's daughter and this patterns was transmitted peculiarly. In the period when he entered Tang, his narratives combined the historical records of Korea and creative fiction and they were handed down with the narratives of his growth period. In his later period, the character of his legendary narratives was to present the proof of narrative.

In the third chapter, I have researched the process of how a novel was derived from the original narrative previously discussed in chapter 2.

A writer novelized Che Chi-won's narratives which had the biographical patterns and simple plots. He novelized by adding fifth motifs to Che Chi-won's narratives and presented our superiority to Tang.

# I. 序 言

## 1. 問題의 提起

孤雲 崔致遠은 統一新羅 말기의 이름 높은 大文章家다. 『國史記』 列傳에 이미 그의 전설이 수록되고 또한 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전승되던 설화가 朝鮮朝에 와서 소설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崔孤雲傳』에서 崔孤雲은 超人的 能力을 지닌 英雄的 人物로 形象化되고 있다.

물론 朝鮮朝 小說 가운데는 설화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이 많다. 이 경우에 한 유형<sup>1)</sup>의 설화가 소설화된 경우도 있고<sup>2)</sup> 몇 가지 유형의 설화가 복합되어 한 작품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sup>3)</sup> 또, 단편적인 모티프가 산발적으로 수용되어 이루어진 경우<sup>4)</sup>도 있다. 『崔孤雲傳』도 人物 崔致遠에 대한 傳記와 傳說, 기존의 民譚 등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이루어졌으면서도 실제 傳記와는 거리가 멀게 초인간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崔孤雲傳』은 그의 傳記的 사실과 설화들이 융해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때,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하면 그 설화들도 본래부터 崔致遠의 설화로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설화의 차용, 변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설화 가운데는 崔致遠說話를 형성시키는 데 기반이 된 原型說話<sup>5)</sup>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요, 이러한 原型說話의 유형이 변이되면서 새로운 挿話가 끼어들어 崔致遠의 說話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崔孤雲傳』은 작가의식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승되는 崔致遠 설화의 話素를 취사선택하고 傳記的 事實, 역사적 사실 등을 결부, 융해시켜 하나의 소설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崔孤雲傳』과 현재 수집된 崔致遠의 설화들을 대상으로 그 설화들은 어떤 유형들로 이루어져 분포되어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소설작품 속에 융해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類型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도 완전한 이야기의 型을 말한다.
- 2) 대표적인 例로 地下國大賊除治說話를 소설화한 金鈴傳(금방울전)을 들 수 있다.
- 3)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해 많은 고대소설이 이에 속한다.
- 4) 고대소설 거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5) 崔來沃은 「韓國口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p.18)에서 두 셋 자료가 서로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根源을 캐보면 原型으로 나타나는 설화를 祖上說話라 명명했으나 여기서는 原型說話라는 用語를 사용하려 한다.

『崔孤雲傳』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학들에 의해 얼마간 이루어져 있다.<sup>6)</sup> 이 작품의 실질적인 연구는 鄭炳昱의 「崔文獻傳紹介」에서 비롯되었는데<sup>7)</sup> 그 이후의 논의들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1) 異本에 대한 검토
- 2) 關聯說話에 대한 검토
- 3) 主題 意識에 대한 검토

먼저 異本에 대한 검토는 李正鎬의 『崔孤雲傳 研究』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sup>8)</sup> 펴내어서 현재 꽤 많은 異本研究가 있다.

關聯說話에 대한 논의는 鄭炳昱의 說話素 分類와 기존 전승에서 그 유형의 추출 시도<sup>9)</sup> 그리고 比較文學的인 입장에서 太平廣記 說話와의 영향관계 등이 이루어졌다.<sup>10)</sup>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다양한 설화가 수용되어 작품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설화의 수용·형성이라는 이 이론은 『崔孤雲傳』의 話素分析에서 根源說話를 추정하는 演繹的 方法을 썼기 때문에 실제의 說話分布 樣相에서 이를 논증하는 데는 미흡한 바 없지 않다. 그 뿐 아니라 說話들의 결합이 주는 의미와 그 외 話素들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의미, 그리고 기존 전승이 주는 의미, 작품상에서 그러한 의미 기능의 有機的 融和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인데, 이 점의 검토가 또한 미흡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실제 향유되고 있는 崔致遠說話를 검토함으로써 이 설화를 형성하는데 관련된 原型說話의 귀납적 검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밝히고, 崔孤雲說話의 실제 分布樣相을 검토하여, 『崔孤雲說話』의 小說化過程 究明을 귀납적으로 실증해 보고자 한다.

6) 鄭炳昱; 「崔文獻傳 紹介」, (『庸齋白樂潛博士還歷紀念 國學論叢』, 1955).  
 ——; 「國文學散叢」, (新丘文化社, 1966), pp.212 ~ 221.  
 李正鎬; “崔孤雲傳研究”, (『國語國文學論集』 6,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66).  
 尹榮玉; “崔孤雲傳攷”, (『嶺南語文學』 3, 嶺南語文學會, 1976).  
 張德順; “崔致遠과 說話文學”, (『아카데미論叢』 4, 1970).  
 薛盛瓊; “崔致遠傳研究”, (『연세어문학』 5,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一志社, 1976), pp. 318 ~ 329.  
 成賢慶; “崔孤雲傳研究”, (『文理大學報』 11, 嶺南大學校, 1978).  
 7) 정병욱; 앞의 책, 앞의 글.  
 8) 李正鎬; 1966. 尹榮玉; 1976. 成賢慶; 1978. 유병윤, “崔孤雲傳研究” 延世大學校 碩士論文, 1982.  
 9) 정병욱; 앞의 책 앞의 글.  
 10) 김현룡; 앞의 책.

## 2. 研究方法

說話를 神話·傳說·民譚으로 三分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다.<sup>11)</sup> 神話는 하나의 神格을 중심으로 하는 說話로서 傳說이나 民譚과는 달리 神聖性和 莊嚴性이 있다. 民譚은 옛날 이야기라고 통칭되는 것으로 神話나 傳說에 비해 훨씬 역사와 거리가 멀다. 시간적으로는 옛날 옛날에……라고만 전해지고 시각하며 공간적으로는 극히 막연하여 이야기에 유래된 하등의 사실 근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話者나 聽者는 한결같이 民譚을 향유하면서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傳說은 이와 다르다.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지어지며 話者나 聽者도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속성은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명확한 구별이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 神話가 神聖性이 약화되었을 때는 傳說로 남게 되고 傳說이 證據物이 사라져 한낱 흥미거리로 흐를 때 그것은 民譚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작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說話의 屬性들은 서서히 문학작품 속으로 응해되어 갔다. 그래서 張德順은 문학작품의 연구는 본격적 문학작품에 나타난 說話의 考察이다<sup>12)</sup> 라고 하여 많은 古代小說에 대한 연구를 신화와 관련시켜 이루어 놓았다.

Taylor도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 1) 많은 문화에 있어서 민간전승은 문학과 구별될 수 없다.
- 2) 문학은 민간전승으로부터 차용해 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 3) 작가는 민간전승을 모방하여 왔다.<sup>13)</sup>

이것은 “神話體系(mythology)는 文學의 母胎이며, 그러므로 신화체계의 구조적 원리는 후에 문학의 구조적 원리가 되었으며, 문학의 語彙的 形式인 고로 神話는 그 자체로 문학이며 동시에 문학은 신화체계를 이어 받았다.”<sup>14)</sup> 고 한 Northrop Frye의 견해와 同一하다.

본 논의는 이러한 견해에서 『崔孤雲傳』을 說話와 기타 傳記, 歷史的 事實 등의 유기체로 보려 한다. 그래서 먼저 전국에 분포된 崔孤雲說話를 대상으로 신화의 分布樣相을 신

11) 說話의 genre 분류를 지구학자는 ① 神話(myth) ② 傳說(Sage, legend) ③ 民譚(folk tale)으로 했고 장덕순도 그 분류기준에 따라 구전민간전승을 신화나 통칭하고 신화·전설·민담으로 區分한 이래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12)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三友社, 1976), p.29.

13) Arche Taylor; “Folklore and the student of literature” (1965) Dundes Alan, ed. p.37.  
李月英; “崔孤雲傳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1984) p.5, 재인용.

14) Northrop Frye; “Fables of identity” (A Harbinger Book, New York Burlingame, 1963),  
李月英; 앞의 책 p.5, 재인용.



피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說話類型을 도출하고, 그것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原型說話를 찾고, 더 나아가 小說化過程에 어떻게 說話가 작용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채록된 崔致遠에 관계된 설화와 필자가 수집한 설화<sup>15)</sup>를 자료로 삼아 崔孤雲說話의 樣相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왕에 나타난 『崔孤雲傳』의 異本에서 原本格인 작품을 추출, 그것을 텍스트<sup>16)</sup>로 소설의 형성시기와 설화가 소설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작품의 부분적인 내용에만 국한시켜 파악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작품 자체가 설화의 복합체임을 항시 염두해 두고 분석·파악해 나갈 것이다.



---

15) 설화자료로서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1980.6.15 부터 1984.8.30 까지 펴낸 권 60권에 채록된 것과 濟州道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에서 필자가 채록한 총 28편을 대상으로 한다.  
16) 본고의 소설 텍스트로는 金起東 所藏의 漢文本 『崔孤雲傳』을 대상으로 한다.

## II. 說話의 樣相

### 1. 時代的 背景

崔致遠은 新羅末期 憲安王代에서 孝恭王代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이 때는 中代<sup>17)</sup>의 專制王權이 무너지고 貴族聯合의인 색채를 띤 지방 호족들의 잦은 왕위쟁탈로 인해 혼란한 시기였다. 특히 崔致遠이 살았던 때는 新羅衰亡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던 眞聖王代로, 唐에서 배운 그의 학식과 경문을 퍼볼 수 없는 불운한 시기였다.

下代의 특성인 사회 혼란이 빈발하게된 원인으로서는 骨品貴族의 지배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점과<sup>18)</sup> 兵部令을 둘러싼 귀족간의 끊임없는 권력항쟁이 있었고<sup>19)</sup>, 사상적인 측면에선 불교사상의 광범한 보급과 이해에 따라 貧民이나 奴婢도 解脫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는 등 개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심화되어졌다는 점<sup>20)</sup> 그리고 非地域의인 普遍的 次元의 政治思想으로서 儒敎政治理念이 新羅 知識人들에게 새 시대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諸般 움직임과 변화는 階級秩序를 해체시켜 나갔고, 이러한 지식인들이 豪族 혹은 落鄕한 貴族勢力과 결합하여 反新羅의 색채를 띠게 됨으로써 社會混亂이 가중되었다고 파악되고 있다.<sup>21)</sup>

『三國史記』 新羅本記에 의하면 新羅는 眞聖王을 고비로 新羅王政이 衰亡의 길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反亂의 樣相과 규모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sup>22)</sup>

眞聖王 이후의 新羅本記記事에는 反亂의 記事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 反亂의 主動役割은 高句麗의 後繼者로 자처하는 弓裔와 百濟의 後繼者로 자처하는 甄萱이었던 것이다. 眞聖王代에 亂이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가 眞聖王의 變態的인 作爲와 紀綱의 紊亂에 있음도 지적되고 있지만<sup>23)</sup>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眞聖王 이전의 新羅 眞骨社會가 분열을 일으켜 잦은 왕위쟁탈을 유발하였고, 결국은 이것이 자체의 권력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動因이 되어 骨品制를 社社秩序의 根幹으로 삼았던 王室自體의 무력화를 촉진시키게 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混亂을 틈타서 지방의 유력한 土着勢力이나 落鄕貴族은 勢力擴張을 꾀하는데 반

17) 『三國史記』 시대구분에 의하면 新羅건국부터 28代 眞德王까지를 上代, 29代 太宗부터 36代 憲恭王까지를 中代, 37代 宣德王부터 56代 敬順王까지를 下代로 나눈다.

18) 丁仲煥; “高麗建國考”, 『東亞論叢』3輯, 東亞大學校, 1966, p.97.

19) 申澄植; “新羅兵部令考”, 『歷史學報』, 歷史學會, 1974, p.98.

20) 安啓賢; “韓國佛敎史(上)”, 『韓國文化史大系』II, 宗教哲學(上), 所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刊, 1979, pp.244~250.

21) 申澄植; “新羅王位 繼承考”, 『柳洪烈 博士 華甲紀念論叢』, 1977.

22) 眞聖王代부터 孝恭王 10년까지의 『三國史記』의 記錄中 反亂記事를 뽑아보면 알 수 있다. 崔敬淑은 “崔致遠 研究”(東亞大學校, 1980) 博士논문에서 위의 사실을 말한바 있다.

2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眞聖王 2年條.

하여 王室은 자체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失政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전국적인 盜賊 蜂起로 飛火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4)</sup>

이러한 가운데서 崔致遠은 時務十餘條를 올려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극복하려 했으나 眞骨階層의 반대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崔致遠은 국가를 위한 충성을 내세웠기에 後代에 와서 그는 하나의 英雄的인 人間像으로 부각되게 되었고 說話的 人物로 化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재주의 아기장수설화가 韓本土에 비하여 不毛의 땅이며 閉鎖된 社會라는 불리한 여건<sup>25)</sup>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웅을 광범적으로 수용하려 한 주민들의 의도와,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어떤 영웅적 인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心的 欲求로 인해 생겨난 것과 같은 것이다. 崔致遠은 이와 같은 後代 民衆의 心的 欲求로 인해 설화화되어 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을 가지면서 널리 분포된 崔致遠의 說話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樣相을 살펴 나가기로 한다.

## 2. 說話의 類型

### 1) 說話의 類型과 分布

本節에서는 崔孤雲說話(이하 孤雲說話로 통일한다)를 향유하는 계층들이 어떤 유형의 설화를 주로 향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孤雲說話를 『韓國口碑文學大系』에서 뽑아 모아 분석한 결과, 이야기 내용이 거의 소설과 흡사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향유되는 이야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향유되는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보기 위하여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기로 하자.<sup>26)</sup>

- 1) 孤雲의 아버지가 고을원에 제수되나, 그 곳 원의 아내를 잃는 변괴가 있음을 듣고 근심하다.
- 2) 父가 고을 원에 부임하니 변괴가 생기고, 그의 아내의 종적이 묘연해지다.
- 3) 아내에게 매어 놓았던 실을 찾아가 아내의 종적을 안다.

24) 崔敬淑; 앞의 책, p.4.

25) 『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眞聖王 8年 2月條에 「崔致遠進時務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爲阿湊」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 그 내용을 진하지 않고 있다.

26) 玄吉彦; “傳說的 變異의 意味”, 『韓國言語文學』 17·18輯, 韓國言語文學會, 1979 pp.289~306.

27) 먼저 설화의 내용을 소설의 최초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논의의 주제상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고 설화에만 나타나는 요소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외시키기로 한다.

- 4) 아내의 지혜로써 사슴가죽을 이용하여 金猪(금돼지)를 죽이고 前任 원의 부인들과 함께 돌아오다.
- 5) 아내가 아이를 낳다.
- 6) 父가 금돼지의 자식이라 의심하여 버리다.
- 7) 하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天女(仙女) 또는 학을 보내어 기르다.
- 8) 아버지를 찾겠다고 가출하다.
- 9) 아이를 위하여 樓臺를 지어 주다.
- 10) 天儒가 글을 가르치다.
- 11) 중원 황제가 한사를 보내다.
- 12) 詩文 경합 후 패배하여 귀국하다.
- 13)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 羅丞相의 딸이 姿色과 節行이 있음을 듣고 거짓으로 繡鏡 賈타 하며 나승상댁에 이르러, 그 딸의 거울을 故意로 깨뜨리고 그 댁의 종(破鏡 奴)이 되다.
- 14) 황제가 석함에 계란을 넣어 알아 맞추는 글을 지어 보내라 하다.
- 15) 파경노에게 말을 기르게 하다가 花園을 가꾸도록 하다.
- 16) 마침내 조경에서 石函에 담긴 계란을 나승상(파경노 주인)에게 맡기다.
- 17)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며 시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다.
- ㉔ 승상 거절하다.
- ㉕ 딸이 효성을 빙자하여 다시 시위 삼을 것을 요구하자 승상 허락하다.
- 18) 아내를 맞이한 후 시를 지어 중원으로 보내다.
- 19) 중원의 황제가 그 詩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詩 지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한다.
- 20) 新羅王가 謁見한 후 自稱 新羅 文章 崔致遠이라 하며 중원을 향하여 發行하다.
- 21)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 비를 내리게 하다.
- 22) 神人들로부터 장차 닥칠 禍와 그 대응책을 듣다.
- 23) 황제가 崔致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인하다.
- 24) 崔致遠이 꾀와 符書로써 무사히 황제 앞에 이르다.
- 25) 崔致遠이 장원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
- 26) 중원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가다.
- 27) 황제가 다시 崔致遠을 부르다.
- 28) 崔致遠 歸國하다.
- 29) 崔致遠이 伽倻山에 들어가 종적을 모르게 되다.(不知所終)
- 30) 증거물로써 崔致遠의 지팡이가 자라고 있다.

- ㉑ 崔氏의 始祖가 되었다.
- ㉒ 중국이 다시는 朝鮮을 넘보지 않게 되었다.
- ㉓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
- ㉔ 죽어서도 후손을 돌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崔致遠의 生涯는 1. 入唐以前의 成長期 2. 入唐 活動期 3. 歸國後의 活動과 入山으로 나눌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生涯를 誕生期, 成長期, 入唐期, 終世期로 나누고, 採錄된 說話들이 어떤 類型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誕生說話型 (資料 17)<sup>29)</sup>

崔孤雲의 탄생경위만을 설명하는 설화로 화소 ⑤<sup>30)</sup>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한 화소만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설화 자체가 전설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전승에서의 변이로 말미암아 화소의 泯滅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이야기의 독자성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誕生說話 +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10,11,12,13)

崔孤雲의 탄생 경위와 증거물을 제시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 2, 3, 4, 5, 6, 7, 29, 30으로 이루어져 있다.

(3) 誕生說話 + 入唐插話 + 歸國插話型 (資料 8)

崔孤雲의 탄생 경위와 入唐 및 歸國 사실이 나타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 2, 3, 4, 5, 20, 28, 30으로 이루어져 있다.

(4) 破鏡奴婚姻說話型 (資料 21)

石函의 물건을 알아 맞추고 승상딸과 결혼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4, 18로 이루어져 있다.

(5)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型 (資料 20)

破鏡奴가 되고 入唐하게 되는 사실을 설명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3, 20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申滄植: “三國史記 列傳의 分析”, 『韓國史論叢』 3輯, 誠信女子師範大學 國史教育學會, 1978.12.

29) 광호 안의 자료 숫자는 pp. 13 ~ 14의 崔孤雲說話 分布表 (표 1)의 지역별 설화번호를 나타낸다.

30) 이 話素番號는 위에 제시된 孤雲說話 내용의 화소번호다. 이하 설화유형의 화소번호도 같다. 다만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고 설화에만 나타나는 화소는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6) 破鏡奴婚姻說話 +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24)

破鏡奴婚姻說話와 證據物提示를 나타내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3, 14, 16, 17, B, 18, 33으로 이루어져 있다.

(7)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벼슬 및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1, 3, 7, 16, 23, 26)

崔孤雲의 誕生 경위와 破鏡奴婚姻 경위를 설명하고 벼슬을 하거나 신선이 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①, ②, ③, ④, 5, 6, 7, 13, 14, 16, 17, A, B, 18, 25, 31, 33으로 이루어져 있다.

(8)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型 (資料 2)

崔孤雲의 탄생 경위와 破鏡奴婚姻 경위를 설명하고 入唐 사실을 나타내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 2, 3, 4, 5, 6, 12, 14, 16, 17, A, B, 18, 19, 20, 25로 이루어졌다.

(9)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4, 25)

崔孤雲의 탄생 경위와 破鏡奴婚姻 경위를 설명하고 入唐한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와서 증거물을 제시하는 설화로 그 화소는 1, 2, ③, ④, 5, 6, 7, 12, 14, 16, 17, B, 18, 20, 23, 24, 28, ⑨, ⑩, 33, 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證據物提示插話 (資料 5, 27)

孤雲의 탄생 경위와 婚姻 경위를 설명하고 入唐하면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는 설화로 그 화소는 1, 2, 3, 4, 5, 6, 8, 12, 14, 16, 17, A, B, 18, 19, 20, 25, 28로 이루어져 있다.

(11)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受難插話 + 謫居插話 +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6)

破鏡奴婚姻 경위와 入唐한 후부터 歸國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후 伽倻山에 들어가 神仙이 되는 설명형으로 그 화소는 12, 14, 15, 16, 17, A, B,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受難插話 + 謫居插話 + 歸國插話 + 證據物提示插話型 (資料 28)

崔孤雲의 탄생 경위와 破鏡奴婚姻 과정, 入唐하고 歸國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난 후 증거물을 제시하는 설화형으로 그 화소는 1, 2, 13, 14, 5, 6, 7, 8, 12, 14, 16, 17,

㉓, ㉔, 18, 19, 20, 23, 24, 25, 28, 29, 34로 이루어져 있다.

(13) 登仙(證據物提示)插話型(資料 9,15,18)

伽倻山에 들어가 神仙이 되었다는 실화형으로 그 화소는 ㉓, 30으로 이루어져 있다.

(14) 較文插話型(資料 14,22)

孤雲과 中國 文才가 詩文競爭하는 說話型으로 그 화소는 11, 12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전국에 分布되고 있는 崔孤雲說話는 1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大分할 수 있다.

A. 誕生期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類型

1. 誕生說話(資料 17)

2. 誕生說話 + 證據物提示插話(資料 10, 11, 12, 13)

3. 誕生說話 + 入唐插話 + 歸國插話(資料 8)

B. 成長期の 破鏡奴婚姻說話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類型

1. 破鏡奴婚姻說話(資料 21)

2.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資料 20)

3. 破鏡奴婚姻說話 + 證據物提示插話(資料 24)

4.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受難插話 + 謫居插話 + 歸國插話 + 證據物提示插話(資料 6)

C. 誕生說話와 破鏡奴婚姻說話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類型

1.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비늘 및 證據物提示插話(資料 1,3,7,23,26)

2.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資料 2)

3.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歸國插話 + 證據物提示插話(資料 5,27)

4.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證據物提示插話(資料 4,25)

5. 誕生說話 + 破鏡奴婚姻說話 + 入唐插話 + 遇神人插話 + 受難插話 + 謫居插話 + 歸國插話 + 證據物提示插話型(資料 28)

D. 其 他

1. 較文插話(資料 14,22)

2. 登仙(證據物提示)插話(資料 9,15,18)

다음은 이러한 說話 類型들이 地域別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기 위해 地域別 孤雲說話 分布表를 작성해 보자.





위 <표 1>에서 분포현상을 분석·설명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설화는 첫째, 원래 처음부터 설화로 口傳되는 경우, 둘째, 기록문학이 설화화되어 口傳되는 경우, 셋째, 처음에는 설화로 口傳되다가 그것이 기록문학으로 정착되고, 다시 설화화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神話처럼 처음부터 口傳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人物傳說인 孤雲說話는 첫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해 두고 위 분포<표 1>를 보면 탄생을 설명하는 화소 ⑦ (하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天女(仙女) 또는 학을 보내어 기르다.) 부분까지의 분포는 밀집되어 있는 반면 그 위의 화소 ⑧ (아버지를 찾겠다고 가출하다.), 화소 ⑨ (아이를 위하여 襦裳를 지어주다.), 화소 10 (天儒가 글을 가르치다.), 화소 ⑩ (중원황제가 학사를 보내다.), 화소 12 (詩文 경합 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는 분포가 희박하다. 특히나 전남 함평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 11 (중원황제가 학사를 보내다.)과 화소 ⑫ (詩文 경합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의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특이한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다음은 화소 13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 나승상딸이 資色과 節行이 있음을 듣고 거짓으로 繡鏡賈라 하며 나승상 댁에 이르러, 그 딸의 거울을 故意로 깨뜨리고 그 댁의 종이 되다.)에서 화소 18 (아내를 맞이한 후 시를 지어 중원으로 보내다.)까지의 부분은 다시 밀집되어 있으나, 화소 19 (중원의 황제가 그 시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詩 지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하다.)에서 또 분포의 희박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면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설화로서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화소 ①에서 12까지를 ‘英雄誕生說話’라 명명하기로 하고 두번째 밀집 상태를 보이는 화소 13에서 18까지는 서울로 올라온 아이가 거울을 깨뜨린 것을 계기로 나승상의 사위가 되고 있으므로 ‘破鏡奴婚姻說話’라 명명하자.

다음 화소 19로부터 28 (최치원 귀국하다.)까지 계속 분포가 희박한데, 이 부분은 경남 거창 일부 지역과 제주의 한림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앞의 두 설화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崔孤雲의 出生期나 成長期에 대한 『王國史記』의 기록에는 <少精敏好學>이라고만 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설화에서는 오히려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본래부터 민간에서 전승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이에 대해 분포상에서 희박하게 나타나는 화소 19에서 28까지의 부분은 탄생기나 성장기의 이야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 아 니할 수 없다.

이 부분은 崔孤雲이 12세에 入唐하여 禮部侍郎 裴瓚이 주권하는 과거에 급제하고, 治績이 우등으로 承務郎侍御史內供奉으로 승직되고, 紫金魚袋를 下賜받으며 『討黃巢檄文』을 쓰는

등 文名을 떨치고 28 세 때에 귀국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부분은 入唐 부분과 歸國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그 사이에 몇 개의 插話가 결합되어 하나의 설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入唐說話’라 명명한다. 분포 지역으로는 경남 거창 일부 지역과 제주의 한림 지역에서만 채록된 점으로 보아, 단독형의 설화가 廣布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入唐說話가 享有되고 있거나 『三國史記』에 기록된 사실이 說話化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原型說話를 추적하는 데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기록문학, 즉 역사적 사실을 참고로 설화화된 ‘入唐說話’라 하겠다.

다음은 神異한 終末을 한 終世期이다.<sup>31)</sup> 崔孤雲은 歸國後 眞聖王에게 時務策을 올렸으나 眞骨들의 반발로 거부당하자 그는 朝廷에서 물러나 隱退를 하게 된다. 그 연유를 『三國史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致遠自西事大唐 東歸故國 皆遭亂世 屯遭蹇連 動輒得咎 自傷不遇 無復仕進意 逍遙自放於出林之下 江海之濱<sup>32)</sup>

唐에서 배운 지식을 마음껏 펼 수 없는 신분적 제약과 당시 新羅의 混亂으로 隱退를 결심하였고 그 후 慶州南山, 剛州 氷山(慶北 義城), 陝川 淸涼寺(慶南 陝川), 智異山 雙溪寺 合浦懸 別墅(昌原 月影臺), 梁山 臨鏡臺, 釜山 海雲臺, 金海 靑龍臺 등으로 逍遊하다가 마지막에는 伽倻山 海印寺에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母兄 賢俊과 定玄師와 道友를 맺고 살았다<sup>33)</sup>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基底로 화소 29 (崔致遠이 伽倻山에 들어가 종적을 모르게 되다.)가 생겨나고 그 후 화소 30 (崔致遠이 꽃아 놓은 지팡이가 아직도 자라고 있다.)이 위의 몇 개 화소가 첨가, 성장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소 29와 30이 들어있는 것을 설화의 유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證據物을 提示하는 插話로 처리한다.

이상에 나타난 대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孤雲說話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며,<sup>34)</sup> 이것들이 서로 多樣하게 結合되면서 위에서 提示한 A, B, C, D 類型的 說話가 전국에 分布되어 있는 것이다.

31) 申澧植은 앞의 책에서 入唐을 중심으로 入唐以前, 入唐, 歸國後入山으로 3분하고 있는데 필자는 入山에 해당하는 시기를 終世期라 명명한다.

32) 『三國史記』卷第46. 列傳第6, 崔致遠傳.

33) 『三國史記』: 앞의 책, 같은 곳.

34) 鄭炳昆은 金猪說話, 棄兒說話, 破鏡說話, 入唐說話, 受難說話, 歸國說話로 나누고 있는데 소설에 나타난 根源說話와 설화상에 나타난 說話型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分布圖〈표2〉上的 各 說話의 分布樣相을 더욱 簡略하게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 表와 같이 된다.

〈표3〉 지역별 설화형 분포

지역	설화형	英雄誕生說話	破鏡奴婚姻說話	人唐說話	證據物提示挿話
	경 남	○	○	○	○
경남김해·경북	○				○
충 북·경 기			○		
제 주 한 림	○	○	○	○	○

이 〈표2〉와 〈표3〉을 살피기에 앞서 전제할 사실이 있다. 孤雲說話는 人物傳說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나타났다가 보다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설이 證示物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알맞는 곳에서 성장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기에 향유되는 설화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화소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原型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설화의 發祥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표2〉를 분석해 보자.

경남지방에서는 김해를 제외하고는 C 유형( 誕生期와 成長期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유형) 경북에서는 A 유형( 誕生期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유형) 경기·충북에서는 B 유형( 成長期를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유형)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3〉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3〉에서 경남과 제주 한림에서는 孤雲의 一生譚이 향유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리상의 여건 때문에 孤雲傳說이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에 경남지역 이야기가 전파된 것으로 보아 본 논의에서 제주의 孤雲說話는 제외시킨다.

그러면 크게 慶南, 慶北, 忠北·京畿로 3 분되어진다. 이것은 지역별로 향유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형별 분포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설화형의 발상지와 관련 지워진다.

한 지역에서 인물전설이 향유되고 있을 때 그 인물이 향유층과 관련이 있으면 향유층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인물에 관한 일체의 것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일부만을 수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의 일생담이 향유되는 경남지역은 崔孤雲에 관한 說話의 發祥地가 되고 그 이외 지역은 孤雲과 직

접 관련이 없으므로 한 일화만을 향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孤雲說話는 英雄誕生說話, 破鏡奴婚姻說話, 入唐說話, 證據物提示挿話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이 판명되었다. 이 4개의 설화 중 英雄誕生說話와 破鏡奴婚姻說話는 分布(표 2)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형성된 孤雲說話임이 드러나는 데 경남, 거창 일부지역과 제주 한림에서 나타나는 入唐說話는 어떻게 결합된 것인가? 그것은 壬·丙 兩亂을 거치면서 서민계층의 자아각성과 자신들의 신분상승을 서서히 꾀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지식층에서는 새로운 학문인 實學의 流入과 더불어 자주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에 일부 뜻이 있는 양반 귀족층은 歷史書를 탐독, 실재인물인 崔致遠을 등장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부여하여 실재적 英雄像을 形象化하려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상에서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入唐 부분과 歸國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보여진다.

證據物提示挿話인 화소 29~34는 後代인이 그를 傳說의 人物로 形象化시킴으로써 첨가된 것이라 생각한다. 時代背景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웠던 시대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려 했던 인물이었기에 설화화될 수 있었고, 소설이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17세기 경의 壬·丙 兩亂을 거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민중에 의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갈 국가적 영웅이 希求되다가, 中國에 대한 독립의식과 반항 정신이 민중으로 하여금 실재인물을 영웅화시켜 希求에의 補償을 이룩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說話 發祥地

위에서 孤雲說話는 많은 挿話들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그 說話型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英雄誕生說話, 破鏡奴婚姻說話가 중점으로 향유되고 遇神人挿話, 受難挿話, 謫居挿話, 歸國挿話가 결합하여 入唐說話가 이루어졌으며 後逸譚挿話인 證據物提示挿話가 결합되어 孤雲의 神異한 終末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下部構造의 分類基準은 孤雲의 活動地域의 變移와 일치한다. 孤雲의 活動地域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孤雲의 誕生地域
2. 羅丞相宅(서울)
3. 入唐
4. 新羅國

孤雲說話에서 英雄誕生說話는 경남과 경북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며<sup>35)</sup> 성장한 후의 활동은 破鏡奴婚姻說話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표 3>에서 탄생설화는 경남, 경북이 중심이 되고 성장기 설화는 경기·충북이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탄생기와 성장기의 설화가 다르게 전승되고 있는 것은 說話의 自生으로 인한 것인지 이동으로 인한 것인지 발상지를 추론해 봄으로써 살펴보도록 하자.

인물이 탄생하면 맨 처음 관계를 맺는 곳은 탄생지, 곧 고향이다. 그러므로 이 곳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건이나 특정된 장소는 인물이 전설화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가 사라져 변이될 경우는 民譚化하기 때문이다.

孤雲을 素材로 한 소설 『崔孤雲傳』에서는 孤雲이 홀로 京城에 전입하여 스스로 거울 고치는 일을 하며 나승상택 문 앞까지 이르게 되는데 新羅의 서울이 慶州이니, 서울로 상경했다는 것은 경남, 경북 어느 지역에서 경주로 상경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을 탄생기에 나타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탄생기와 성장기의 관계를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崔孤雲 誕生說話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경남지방에서 나타난 설화 중 誕生說話의 발생지역을 알아 보기 위해 설화상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誕生과 관련이 있는 孤雲의 父가 부임한 장소와 孤雲을 버리는 곳과를 구별, 대조해 보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탄생설화가 형성, 향유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英雄誕生說話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경남지역의 것을 분석해 보자.

< 표 4 > 慶南地域 孤雲說話에서 孤雲父의 부임지와 棄兒場所

자 료 번 호	구 분		부 임 지	버 리 는 곳
	지 역			
19	경 남 진 양 군		마 산 창 령	물 가 둑
20	경 남 진 양 군		×	솔 밭
21	경 남 진 양 군		진 라 도 순 장	가 출
22	경 남 진 양 군		×	바 다
23	경 남 진 양 군		×	×
24	경 남 진 양 군		너 산	돌 섬
25	경 남 진 양 군		×	돌 섬

\* 자료번호는 부록의 韓國口碑文學大系 資料를 뜻함.

35) pp. 13~14 의 <표 1> 참조.

〈표4〉에 따르면 향유되는 곳으로 경남 김해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내륙으로 나타나고 있다. 孤雲父의 부임지로는 마산창녕, 창원, 진라도순창, 마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녕(昌寧)은 창녕군에 속한 내륙이고 마산이 있는 곳은 창원군(昌源郡)으로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발음상의 변이로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는데, 버리는 곳과를 대비해 보았을 때 내륙에서는 ‘물가둑’에 버리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며 설화상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면서 전승되기 위해서는 마산 창원에 부임한 셈이 된다.

孤雲을 낳고 버리는 곳은 솔밭, 물가둑, 돌섬, 가출, 바다 등으로 나타난다. 김해군을 제외한 지역은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은 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논섬(猪島)인데 마산 앞바다에 실재하고 있어 설화상 합리성을 갖는다.

이런 점으로 추정할 때 孤雲父는 昌源郡으로 부임해 가서 孤雲을 낳자 猪島에 버렸다는 셈이 되며 이 지역에서 誕生說話는 싹트기 시작한 것이 된다. 경북에서 전승되는 탄생설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破鏡奴婚姻說話에서 孤雲은 경남의 바닷가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상경한 후 승상의 딸과 결혼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難題를 해결하여 큰 벼슬을 하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의 이동과 더불어 孤雲說話도 이동, 전승되었음을 경남지역 이외에서 나타나는 誕生說話 중에서 孤雲父의 부임지와 버리는 곳을 살펴봄으로써 위의 사실을 확인해 보려 한다.

〈표 5〉 慶北 및 기타 地域 孤雲說話에서 孤雲父의 부임지와 棄兒場所

자 료 번 호	구 분 지 역	부 임 지	버 리 는 곳
3	서울도 봉구	어느 고을	강변 바위
6	강원 삼척군	강원도 함흥 영흥골마을	강 변
8	강원 양양군	×	×
11	충남 대덕군	고을 원	들 (야 외)
14	경북 월성군	×	숲 속
15	경북 월성군	×	×
17	경북 성주군	×	×
18	경북 영덕군	함경도 어느 고을	×

\* 자료번호는 부록의 韓國口碑文學大系 資料를 뜻함

〈표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남지역에서 나타나는 분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경남지역에서는 孤雲의 父의 부임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확실한 地名이 등장하여 傳說로서의 믿음성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서는 「어느 고을 원」으로 나타나며 고을을 버리는 곳이 경남지방에는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일정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버리는 곳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설화가 발생하여 향유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려 한다. 그러나 〈표5〉에서 나타나듯이 설화 발생지역인 경남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데 따라 崔孤雲이라는 人物의 신비스러운 誕生 이외의 사건에는 관심이 두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孤雲의 父가 부임하는 곳이 ‘어느 고을’이라고 하여 막연하게 나타나며 버리는 곳도 ‘들’ 이니 ‘숲속’ 이니 하여 지역성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孤雲의 誕生에 관한 英雄誕生說話는 경남지방의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경북 및 기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남지역과 가까운 전남에서는 전혀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소백산맥과 광주산맥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한 전라, 충청지역은 百濟文化圈이기에 新羅人 崔致遠에게는 관심이 없어 전파상 용이하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人物傳說을 발생시켜 향유하는 지역에서의 향유층은 口傳되는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기 때문에 人物傳說은 그 향유지역의 영웅전설로 남는 이유이기도 하며, 경남지역에서 誕生說話 뿐만 아니라 破鏡奴婚姻說話, 入唐說話, 證據物提示插話를 향유하는 이유는 孤雲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孤雲을 지역적인 英雄으로 形象化시키면서, 향유층의 英雄希求에 대한 바람을 孤雲을 통해서 투영, 해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孤雲은 경남지역의 지역적 영웅으로서 孤雲에 관한 일체의 설화가 誕生說話가 향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고, 특히 英雄으로 형상화되어 口傳되면서 傳說化된 것이라 하겠다.

### 3. 原型說話

위에서 孤雲說話의 분포 發祥地를 보아 왔지만, 이들 설화들이 본래부터 인물 崔致遠에 관한 설화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孤雲과 관계없는 여러 설화들이 孤雲의 이야기에 수용되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原型說話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설작품 『崔孤雲傳』에 수용된 根源說話는 鄭炳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1. 金猪說話(誕生說話)



## 2. 棄兒說話(幼年時代)

- ① 棄兒說話      ② 較文說話      ③ 贈謎說話

## 3. 破鏡說話(思春期)

## 4. 入唐說話(中路挿話)

- ① 龍宮赴宴說話      ② 魏耳島酒雨說話      ③ 遇神人說話

## 5. 受難說話(留唐時代)

- ① 入宮說話      ② 謫降說話

## 6. 歸國說話

그러나 이들 설화들은 『崔孤雲傳』의 내용 분석에서 추출된 가상의 설화이지, 실제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孤雲 설화를 밑받침으로 하여 귀납된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향유되는 孤雲說話에 위의 것들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실제 향유되는 설화에서는 4개의 설화 즉 英雄誕生說話, 破鏡奴婚姻說話, 入唐說話, 證據物提示挿話가 존재하고 誕生期를 주로 향유하느냐 成長期를 주로 향유하느냐에 따라 說話類型이 나누어졌음이 앞에서 살펴졌다. 그러면 이들 각각의 설화들은 어떤 종류의 挿話나 話素로 이루어졌는지 그 原型을 살펴보자.

### 1) 英雄誕生說話

鄭炳昱은 『崔孤雲傳』을 形成시킨 誕生說話는 金猪說話로, 幼年時代의 이야기는 棄兒說話로 되어 있음을 말했으나, 필자는 誕生過程과 幼年時代의 실제 설화를 살펴본 결과, 幼年時代의 설화는 따로 전승되지 않고 誕生과 幼年期를 함께 설명하는 英雄誕生說話만이 존재함을 알장에서 살폈다.

이 英雄誕生說話는 다음과 같은 3개의 挿話<sup>36)</sup>로 이루어져 있다.

- ① 金猪誕生挿話      ② 棄兒挿話      ③ 天女保護挿話

첫째, 金猪誕生挿話는 人物 崔致遠의 出生傳說로 전해지고 있다. 崔致遠에 관련된 설화로는 출생에 얽힌 전설과 그가 神仙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출생에 얽힌 전설부터 살펴 나가기로 한다. 神仙에 얽힌 설화는 證據物提示挿話에서 살펴볼 것이다.

---

36) 挿話(episode)는 說話類型(type)를 구성하는 對等的인 下位 說話類型이며 話素(motif)로 구성된다. 話素(motif)는 挿話(episode)를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갈래로 가장 짧은내용을 가진 이야기의 알맹이다.

- a) 新羅 때에 어느 고을 샷도가 부임하면 그 날 밤에 샷도의 아내가 행방불명되는 怪變이 있었다.
- b) 그 지방 샷도로써 갈 사람을 널리 모집하니 한 지원자가 나타나 부인과 함께 임지에 부임하다.
- c) 샷도가 부임한 날, 명주실을 구하여 아내의 치마자락에 매어놓다.
- d) 밤이 이슬하여 괴이한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고 아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 e) 이튿날 샷도가 명주실을 따라서 뒷산 바위 속 굴에 이르다.
- f) 샷도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다.
- g) 아내가 도적(괴물)의 정체는 돼지이며, 지금 사냥을 나가 없다고 알려주다.
- h) 마침 도적이 돌아와서 샷도가 칼을 빼어 내리쳐 죽이니 늙은 금빛 돼지였다.
- i) 아내를 데리고 온 지 열달 후에 아기를 낳다.
- j) 샷도가 官屬을 시켜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내라 하였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길가에 버리다.
- k) 어느 고을 노파가 그 아기를 주워다 길렀는데 뒤에 훌륭한 인물이 되다.
- l) 이 이야기가 곧 경주 최씨의 시조요, 新羅의 大文豪인 崔致遠 先生이다. 그래서 경주 최씨는 금돼지의 자손이라는 傳說이 있다.<sup>37)</sup>

이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설로는

- A) 全羅北道 沃溝群 古群島 傳說<sup>38)</sup>
- B) 平安北道 鐵山群 姑面 日新洞 東巔岩山 洞窟 傳說<sup>39)</sup>
- C) 慶尙北道 京州市 傳說<sup>40)</sup> 등이 있다.

위의 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전설이 江原道 金化群 金城面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옛날 강원 금화군 금성면 뒷산에 금돼지 한 마리가 살았는데 변화가 무궁하고 행패가 심하였다.
- 나) 고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곳 원이 금돼지를 잡으려고 결심하다.
- 다) 이것을 안 금돼지가 원 내외를 감쪽같이 굴 속으로 잡아다 놓고 날마다 일을 시키다.
- 라) 어느 날 금돼지가 원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물으니 원은 ‘떡’이라고 대답

37)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pp.138 ~ 140.

38) 崔常壽; 앞의 책, p.140. 附記.

39) 朴榮濬; 「韓國의 傳說」3, 韓國文化圖書出版社, 1972, pp.149 ~ 153.

40) 韓國文化放送株式會社編, 「傳說따라 三千里」, 東亞文化院, 1966, pp.251 ~ 256.

- 하고, 금돼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사슴가죽’이라고 하다.
- 마) 금돼지가 원 앞에 떡을 놓고 놀로 굴 입구를 막고 나간다.
  - 바) 원이 떡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꼼꼼히 도망할 궁리를 하다.
  - 사) 원은 열쇠꾼이 사슴가죽임을 깨닫다.
  - 아) 원이 열쇠꾼을 보이며 금돼지를 죽이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와서 잘 살다.
  - 자) 수개월 후에 원의 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부정하다고 하며 자결하려다가 원의 만류로 돌이키다.
  - 차)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다.<sup>41)</sup>

釜山 東萊 근처의 <彌勒 돼지 이야기><sup>42)</sup>도 이 전설들과 유사한데, 여기서는 사슴가죽이 아닌 羊 혹은 양털로 되어 있는 점만이 다르다.

이상 두 가지 설화는 내용이 서로 비슷하며 화소도 서로 동일하다. 다만 앞엿 설화는 金猪 誕生한 아이가 崔致遠이라 명시하여 있고, 뒤엿 설화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만 설명하여 구체적인 人物名을 밝히지 않았음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은 類似的인 뒤엿 설화가 앞엿 설화의 變異에서 온 것인지, 앞엿 설화가 뒤엿 설화의 變異에서 온 것인지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金猪 誕生插話가 반드시 崔致遠의 誕生話素로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현재 다른 英雄的 人物의 誕生話素로서 金猪 誕生插話を 여러 편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전되면 다른 영웅적 인물의 誕生插話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 金猪 誕生插話は 英雄 誕生說話의 한 화소가 崔致遠 傳說로 수용한 것이라 생각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삽화의 화소인 「명주실을 따라 부인의 행방을 찾는 일」, 「금돼지를 굴 속으로 들어가 퇴치하는 일」 등은 夜來者型 說話에서 명주실을 따라 夜來者를 찾는 것과 地下國大賊除治說話 중 굴 속의 세계에서 大賊을 除治하는 것과 같은 점이다. 굴 속에서 금돼지를 退治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들 설화 화소의 수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金猪 誕生 이야기도 다른 英雄 誕生說話의 화소의 수용일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둘째, 棄兒插話は 孤雲의 出生說話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英雄神話에서 흔히 나타나는 插話이다. 朱蒙의 誕生神話에서 柳花가 알을 낳자,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길한 일이라 하

41) 崔常壽; 앞의책, pp.426 ~ 428.

朴榮濬; 앞의책, pp.308 ~ 312. 사), 아)은 朴榮濬 編에만 있고, 원이 먼저 잡혀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2) 孫晉泰; 「韓國民間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1, pp.110 ~ 111.

여 버렸는데 그 알 속에서 朱蒙이 태어났다는 이야기<sup>43)</sup>와 유사한 것이다. 많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古代英雄神話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소를 수용, 변형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세째, 天女保護插話다. 이것 역시 英雄神話에 나타나는 화소이다. 위에 든 朱蒙誕生神話에서 柳花가 낳은 알을 버렸더니, 개·돼지가 보호하고, 다시 길에 버렸더니 마소들이 보호하고, 들쥐에 버렸더니 새·짐승들이 보호해 주어 朱蒙이 탄생하는 것과 유사한 화소다. 이 화소도 역시 古代英雄神話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소를 수용, 변형시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孤雲 誕生說話는 영웅의 異常誕生을 설명하기 위해 神話的 英雄의 탄생설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상이 說話素<sup>44)</sup> ⑦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명인데, 幼年期에 해당하는 화소 ⑪(중원 황제가 학사를 보내다.) 화소 ⑫(詩文 경합 후 학사 패배하여 귀국하다.)인 較文插話가 과연 어떻게 誕生說話의 素材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說話는 鄭炳昱이 較文說話라 명명하여 小說의 根源說話로 취급하고 있지만 孤雲의 英雄誕生說話의 原型說話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증거로는 설화상에 나타나는 詩文競爭이 전남 함평과 서울 도봉에서만 孤雲과 中國文章의 시짓기 경쟁으로 나타나고 실제 孤雲誕生을 설명하는 설화에서는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45)</sup> 다만 孤雲이 中國에서 文章으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던 漢文 詩句가 崔孤雲逸話에 수용되어 향유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詩句는 민간에서 “四喜”<sup>46)</sup>라는 제목으로 향유되는 전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형인데, 내용은 孤雲이 中國 文才와 시짓기 내기를 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四喜”라는 說話는 孤雲說話가 아닌 다른 설화에서 文章力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中國 文才와 시짓기 내기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孤雲에 얽힌 단독설화가 아님은 명백하다.

실제 口傳說話에는 孤雲에 관한 詩文競爭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民譚에서 〈떡보와 중국사신〉이란 제목하에 詩才를 겨루는 내용의 詩文競爭說話가 流傳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孤雲의 原型說話로서 較文說話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較文說話는 孤雲의 英雄誕生說話의 素材가 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유행하던 詩文競爭說話가 文章이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崔孤雲의 것으로 수용되어 향유되기 시작한 것이라 보여진다.

43) 「三國遺事」卷 第一,高句麗條.

44) < 표1 > 참조.

45) < 표1 > 참조.

46) 최고운이 중국문장과 가기를 치르는데 「四喜」라는 제목이 주어져 孤雲이 中國 文才보다 더 나은 詩를 지어 장원으로 뽑혔다는 이야기. 백운소설에서는 이 이야기가 정지상과 김부식의 詩文競爭 이야기로 나온다.

## 2) 破鏡奴婚姻說話

이 설화의 소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다만 「韓國口碑文學大系」에 收錄된 說話와 『崔孤雲傳』을 비교해 볼 때 서울로 상경한 孤雲이 승상택에 머무는 과정에서 설화와 소설의 차이가 나타난다. 小說에서는 中國에서 石函에 물건을 담아 보내며 속에 든 것을 알아 맞히는 詩를 지어 보내도록 한 후 아이가 승상택에 머물게 되나, 說話에서는 도치되어 아이가 승상택에 먼저 머물고 난 후 中國에서 石函 속의 물건을 알아 맞히라고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설화와 소설을 구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설화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주요 패턴이다. 반면에 소설은 입체적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를 무시할 수 있다. 사건이 먼저 제시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뒤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시하는 複線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讀者로 하여금 흥미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설화상의 인물 孤雲은 승상택에 먼저 머물고 난 후 難題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설화는 崔孤雲의 성장기에 해당하지만 실제 孤雲의 傳記를 기록한 『三國史記』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설화 중에는 ‘과경노’<sup>47)</sup> 이야기라 하여 人物 孤雲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한 民譚으로서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독립적인 설화 소재가 孤雲의 婚姻과 關聯된 이야기로 수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 民譚에서도 奴僕이나 머슴(傭人)이 主人宅 딸과 婚姻하는 로맨스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은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다.

## 3) 入唐說話



<표1>에서 나타났듯이 入唐說話는 경남 거창지역과 제주 한림을 제외하고는 거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아 다른 설화처럼 단독설화가 存在하지 않은 것같이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설화내용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入唐說話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 이 說話는 入唐插話·遇神人插話·受難插話·謫居插話·歸國插話로 나뉘어진다. 화소 19 (中原의 황제가 그 詩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시 지은 사람을 불러 들이라 하다)와 화소 20 (新羅王께 謁見한 후 自稱 新羅文章 崔致遠이라 하며 中原을 향하여 發行하다.)의 入唐插話는 역사적 사실을 基底로 한 것이요, 화소 21 (비를 내리게 하다.)과 화소 22 (神人들로부터 장차 닥칠 禍와 그 대응책을 듣다.)의 遇神人插話, 화소 23 (황제가 崔致遠을 죽일

47) 「韓國口碑文學大系」 9-1, pp.75~85. 인용인 구술.

계획을 세우고 誘引하다.)과 화소 ㉞ (崔致遠이 피와 符書로써 무사히 황제 앞에 이르다.)의 受難插話, 화소 ㉟ (中原 大臣들의 모함으로 귀양가다.)과 화소 ㊱ (황제가 다시 崔致遠을 부르다.)의 謫居插話는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三國史記』에는 12세에 入唐하여 18세에 歸國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遇神人插話와 受難插話 및 謫居插話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기록의 설화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설에서는 적지 않은 이야기가 入唐 부분에서 서술되며, 가장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문학화되어 廣布되면서 일부 識者들에 의하여 傳記的 骨格에 다른 插話들이 결합되어 실제 인물이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이 때 수용된 것이 遇神人插話, 受難插話, 謫居插話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入唐說話 부분은 실제 설화분포를 나타내는 <表1>에서는 분포가 희박하고 『崔孤雲傳』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여 어쩌면 『崔孤雲傳』이라는 기록문학의 설화화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설화의 분포가 경남 거창지역과 제주 한림지역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록문학의 설화화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 나타나는 화소인 破鏡奴婚姻說話에서의 <新羅王이 石函 속에 들어 있는 문제 해결에 고심하다>와 入唐 부분에서 <躑躅島 한 곳에 이르러 致祭하려다 龍子인 李牧을 만나 龍宮에 다녀와서 李牧과 同行하다>와 受難 부분에서 <中原에서 學士와 問答하여 이기다> 그리고 귀국 부분에서 <崔致遠이 도술로써 中原王을 꾸짖다.> 같은 화소가 설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48)</sup> 더구나 기록문학의 설화화라고 보여지는 지역인 경남 거창과 제주 한림지역에서도 이 5개 화소의 분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기록문학의 설화화로 볼 수 없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5개의 화소가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록문학이 설화화되어 향유되는 과정에서 향유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망각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무관심으로 인해 망각이 일어났다고 해도 제주와 경남 거창지역에서 꼭 같이 생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남 거창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로 보려 한다. 필자가 이처럼 破鏡奴婚姻說話와 함께 향유되는 완전한 존재로 보고자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확실해진다.

첫째, 入唐說話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꼭 成長期를 나타내는 破鏡奴婚姻說話와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에 나타날 證據物提示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며 孤雲의 一代期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48) 崔孤雲說話素 및 小說話素 對比表 <표6>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가장 신이 나고 후련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小國의 使臣인 崔致遠이 中原 황제를 꾸짖는 대목이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崔孤雲傳』이라는 기록문학의 영향을 받아 설화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入唐說話는 遇神人插話와 受難插話, 謫居插話를 포함하여 거창지역에서 향유되던 지역적 설화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설에서 나타나는 留唐期에 해당하는 화소 ㉞ (崔致遠이 장원에 급제하여 벼슬하다)가 문제인데 화소 ㉞가 설화에 나타날 경우에는 歸國插話 또는 證據物提示插話가 없다. 즉 설화에서 화소 ㉞는 傳說의 一面을 남기는 것으로 證據物提示話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탄생기나 성장기를 거쳐 그 결과 中國에서 큰 벼슬을 하였다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證據物提示話素이며 전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崔致遠이 新羅로 돌아왔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歸國插話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생겨난 화소로서 入唐說話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入唐後 많은 受難을 당하면서도 극복하고 드디어는 歸國했기 때문에 향유자들은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귀국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되므로 전설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그래서 歸國插話는 入唐했다가 歸國한 후 까지의 入唐說話 부분에 포함시켜 문제가 없겠다.

#### 4) 證據物提示插話

三國史記에 따르면 〈最後帶家隱伽倻山海印寺〉라 하여 그의 晩年를 설명하고 있으나 소설에서는 〈入山後不知所終〉이라 하여 神仙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孤雲과 관련된 설화로

- a) 伽倻山 海印寺에는 그가 植樹한 槐가 있고 雙溪寺에도 손수 심은 老槐가 있었다고 하며, 紅流洞 大寂光殿 앞에는 學士臺라고 하는 큰 盤石이 있고, 一炷門 안 右側에는 千年老槐의 殘骸가 남아 있는데 그 古木은 開山 당시에 孤雲이 植樹한 것이라고 한다.
- b) 海印寺에 가면 崔致遠이 짚던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巨木이 되었다고 한다.<sup>49)</sup>
- c) 致遠在海印 一朝早起出戶 遺冠履林間 不知所之 寺僧 以其薦冥禧 爲常 寫眞 留讀書堂 堂地在寺西 世傳仙去<sup>50)</sup>

49) 趙東 -; “傳說의 形成과 意味”, 『冠嶽語文學』 第三輯에서 再引用.

50) “海東異續”, 〈補崔致遠〉, 『韓國文獻說話全集』 6, 東國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81. pp.412 ~ 413.

d) 讀書堂 世傳 崔致遠隱伽倻山 一朝早起出戶 遺冠復於林間 不知所歸<sup>51)</sup> 라 하여 崔致遠 라 하여 崔致遠이 植樹한 지팡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이 나무가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 하여 신선이 됨을 은근히 암시하는 반면 崔氏의 始祖가 되었다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팡이가 살아 남는다’와 같은 이야기는 崔致遠 뿐만 아니라 나옹전설<sup>52)</sup>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런 화소를 가진 설화가 다른 데서 향유되던 것이 崔致遠에게 수용되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설화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에서 믿음과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證示부분이기에 삽화로 처리한다.

이상에서 논급한 原型說話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插話의 결합체가 된다.

- ① 英雄誕生說話；金猪誕生插話 ① ~ ⑤ + 棄兒插話 ⑥ + 天女保護插話⑦
- ② 破鏡奴婚姻說話；破鏡奴婚姻說話 13~18
- ③ 入唐說話；入唐插話 19~20 + 遇神人插話21~22 + 受難插話23~24 + 謫居插話25~27 + 歸國插話28
- ④ 證據物提示插話；證據物提示插話 25, 29~34

이들 插話 중 入唐插話, 歸國插話는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그 외의 插話들은 모두 孤雲과 관계없는 민간설화에서 차용하여 崔致遠의 說話로 수용,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 『崔孤雲傳』과 崔孤雲說話와의 관계는 어떤가? 鄭炳昱은 『崔孤雲傳』이 說話의 結合체임을 밝힌바 있지만 필자는 실제 향유되는 설화를 바탕으로 그 소설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孤雲先生事蹟” 「崔文昌侯全集」, p.423.

52)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民族文化叢書」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 1979.



### Ⅲ. 小說化 過程

#### 1. 傳記의 背景

『崔孤雲傳』에 나타나는 주인공 孤雲은 實存人物을 모델로 한 허구적 인물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崔致遠의 生涯는

1. 入唐以前의 成長期 2. 入唐 活動期 3. 歸國後의 活動과 入山으로 구분된다.<sup>53)</sup>

이러한 傳記 類型은 소설 속에 그대로 수용되어 傳記的 小說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人物의 出生, 成長, 終世의 3段階段 사실과 같을 뿐 소설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점들을 각 단락별로 검토해 보면

1. 入唐以前: 소설에서는 다채롭고 흥미있게 펼쳐지는 入唐以前 成長期의 내용이 史實에서는 『三國史記』 崔致遠條의 〈少精緻好學〉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기록에서는 전혀 전하는 바 없다.

2. 入唐活動: 소설에서는 入唐의 동기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있었지만 史實의 記錄에서는 〈隨海舶入唐求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설 상에서 나타나는 내용 중 黃巢擊破 사실과 과거에 급제한 사실을 제외하고 중원에서 겪은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는 허구이다.

3. 歸國 後의 活動과 入山: 歸國 後 入山하기까지의 은퇴생활을 『三國史記』 列傳 崔致遠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致遠自西事大唐 東歸故國 階遭亂世 屯遭蹇連 動輒得咎 自傷不遇 無復任進意 逍遙自放

唐에서 배운 지식을 마음껏 펼 수 없는 신분적 제약과 또한 당시 新羅의 내부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隱退를 결심하게 되고, 그 후 慶州 南山, 剛州 氷山(慶州 義城), 陝川 淸涼寺(慶南 陝川), 智異山 雙溪寺, 合浦懸 別墅(昌原 月影臺) 梁山 臨鏡臺, 釜山 海雲臺, 金海 靑龍臺 등으로 逍遊하다가 끝내는 伽倻山 海印寺에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母兄 賢俊과 定玄師와 道友를 맺고 살았다고<sup>54)</sup> 하여 자세한 활동상황이 펼쳐지지만 소설에서는 〈致遠棄家求道人伽倻山 不知所終〉이라 하여 그 이외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3) 申滄植: 앞의 책.

54) 『三國史記』 卷 46, 列傳 6, 崔致遠傳.

이처럼 대부분 非史實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영상화되고 있는 소설상의 주인공 孤雲은 역사적 인물 崔致遠 과는 전혀 다른 허구적인 인물이며, 소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入唐以前, 入唐活動, 歸國後의 活動과 入山이라는 傳記的 骨格이 소설의 構造的 基本 骨格으로의 수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역사적 인물에서 나타나는 傳記的 骨格이 작품 구성에서 기본 골격을 이룬 것은 『崔致遠傳』의 본질적 특성인 “英雄의 一生”의 類型을 수용하여, 英雄神話화시키는 데 근거한 英雄의 創造에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12 세 入唐 以前の 史跡 泯滅은 모든 사건의 허구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더구나 앞절에서 드러나듯이 『崔孤雲傳』 자체가 孤雲說話를 숭상하여 이루어졌고, 傳說에 ‘돼지의 자손 崔致遠’<sup>55)</sup>이 존재하는 것은 英雄의 人物의 誕生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異常誕生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遺棄에 따르는 상황설정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게 했다.

入唐時의 일개 微力한 新羅人으로 大國인 中原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과거에 급제하여 中原內에서도 큰 文名을 떨쳤다는 歷史的 骨格 受容은 新羅와 中原間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함을 의미하는 소설에서의 九重門 通過 插話의 受容根據가 될 수 있었다. 그 九重門을 英雄的으로 通過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異人插話와 神話的 呪術的 도구의 수용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었다.<sup>56)</sup>

歸國과 入山 사실의 수용은 신비로운 최후를 마쳤다는 것을 神格化시킴으로써 傳說的 人物임을 확고히 하였다.

이처럼 작품이 수용한 전기적 骨格은 역사상에 나타난 진실적 인물의 神格化의 類型性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볼 때 『崔孤雲傳』은 허구소설이기 때문에 史實上의 의미가 없지만 그의 일생에서의 傳記的 骨格을 작품이 수용한 것은 『崔孤雲傳』이 英雄神話化를 지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 된다.

55) 崔常壽; 앞의 책, pp.238 ~ 239.

56) 李月英; “崔孤雲傳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4, p.55.

## 2. 小說의 形成時期

설화를 소재로 하여 많은 古代小說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판소리계 소설들이 根源說話를 갖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이루어진 소설들은 작자는 물론이거니와 창작연대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고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때 대강의 창작연대는 추정할 수 있게 된다.

『崔孤雲傳』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자를 알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작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작인지는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소설작품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누가 창작자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창작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소설화한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연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자료를 검토해 봄으로써 추정은 가능하다. 현존하는 筆寫本 『崔孤雲傳』 가운데 最古의 것으로 추정되는 『崔文獻傳』<sup>57)</sup>은 「慎獨齋 手澤本 傳奇集」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手記가 실려있다.

「予本好學 尤好雜記 借來此冊 潛以着慮 細細詳覽 則不知傳寫 出於何人之手 而或有衍字 多誤書 又有落字 文理不成 不然連續 故以文害蒙 以義害文之處 頗多有之 是以間或窃付己意 詳考諸書 刪其繁亂 改其誤字 補其闕字 然後文理 接續 詳略於因文 甚明白蒙極貫通 有何難知兮 疑訝之處乎 又恐文理不該之人 難於絕句 相續上下 故難通之處 未該之間 點著絕句 以俟後之讀者 不庶乎有益於此俟」<sup>58)</sup>

이 手記의 내용이 확실히 慎獨齋의 것이라면 이 작품의 형성시기는 추정 가능하다. 그는 沙溪 金長生의 아들로서 萬曆甲戌(宣祖七年 1574 A·D)에 나서 崇禎內中 孝宗七年(1655 A·D)에 죽었기에 그의 沒年인 1655년 이전에 이 작품이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金起東本의 『崔孤雲傳』異本中에 末尾에 「正德中 樵夫……」云云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로써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轉寫者의 恣意的인 기록일 수도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成賢慶님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丁卯·丙子胡亂을 겪으며 中國民族에게 시달린 원한을 정신적으로 극복·보상하고, 壬辰倭亂·丁酉再亂을 겪으면서 민족적 각성이 싹틈에

57) 현재까지 검토된 異本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漢文本을 原本, 한글본은 後代에 나온 것으로 漢文本의 모방 및 轉寫로 보고 있다. 이러한 漢文本은 鄭炳昱本인 「崔文獻傳」을 中心으로한 系列의 것과 그것을 개작한 金起東本 系列의 것으로 나누고 한글본은 이들의 번역 및 新소설조로 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58) 鄭炳昱; 앞의 책, p.812. 再引用.

따라 유능한 작가가 나타나 轉倒된 현실을 개탄, 바로잡고자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素地도 있으므로 17세기 前半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sup>59)</sup> 고 하였다.

山田士雲의 『象胥記聞』에 의하여 正祖 18年(1794)에 張豊雲傳, 九雲夢, 崔賢傳, 大成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崔忠傳, 泃(謝)氏傳, 淑香傳, 玉橋(梨)傳, 李白慶傳, 三國誌 등이 顔文으로 쓰여졌음을<sup>60)</sup> 알 수 있다. 이로써 18세기 말에는 한글본도 많은 유행을 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崔三龍은 『崔孤雲傳』은 異民族에 대한 排他내지 斥外感情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적어도 강대 민족에 대한 斥外思想이 가장 踴躍된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시기는 明의 군사들이 우리 땅에 머물면서 만행을 부리던 壬辰倭亂 직후가 그 절정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崔孤雲傳』의 出現年代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壬辰倭亂의 시기로부터 丁卯·丙子胡亂 이전의 시기로 좁힐 수 있다고 하였는데<sup>61)</sup> 필자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

### 3. 小說化 過程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孤雲說話는 여러 개의 原型說話가 복합되어 탄생기, 성장기, 입당기, 終世期 등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소설화된 것일까?

한편의 소설이 人物, 事件, 背景으로 구성되는 것은 상식이다. 古代小說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복합구성도 있지만 대개 개인의 傳記 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성이 단순하고 플롯의 진행이 평면적으로 진행된다.

『崔孤雲傳』은 이러한 傳記體 小說로서 실재인물을 소재로 영웅신화화를 지향하면서 영웅의 일생 구조를 수용하고 있다. 神話體系에서 영웅의 일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니고 있다.

-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한다.
-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59) 成賢慶; “崔孤雲傳 研究”, 『文壇大學報』11輯, 大邱, 嶺南大學校, 1978, p.36.

60) 金東旭; “한글소설 坊刻本の 成立에 對하여”, 『郷土 서울』, 서울,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60, p.41.

61) 崔三龍; 『一山 金俊榮 先生 停年紀念論叢』, 『一山 金俊榮 先生 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5, 8, pp.295 ~ 321.

- (라)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마) 구축·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바) 자라서 위기에 부딪혔다.
-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sup>62)</sup>

『崔孤雲傳』에서는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棄兒된 후에 天女로부터 보호를 받고 天儒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탁월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崔孤雲傳』에서 (다) 화소는 (마) 다음에 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의 傳記的 類型에 맞게 소설의 실제 화소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文昌命 崔仲의 아들이다.
- (나) 아내가 金猪에게 잡혀갔다 온 후 태어난다.
- (다) 어려서 중국 문장과 詩를 서툰 물리치고, 성장해서는 중국에서 보내온 難題를 해결한다.
- (라) 金猪의 자식이라 하여 버려진다.
- (마) 天女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天儒들의 도움으로 학문을 익힌다.
- (바) 입당 후 중국문장들의 모함으로 유배가게 된다.
- (사) 위기를 극복하고 귀국한다.

이처럼 신화적 유형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崔孤雲傳』은 古代小說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일생 유형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갖는 『崔孤雲傳』은 英雄誕生說話, 破鏡奴婚姻說話, 入唐說話, 證據物提示挿話로 구성되어졌음을 앞에서 밝혔다. 그러면 이러한 실화들이 소설구성의 어떤 단계를 거쳐 영웅의 일생 구조를 수용하여 소설화되었는가를 추적해 보자.

소설구성에 있어 孤雲의 誕生說話는 發端에 해당한다. 英雄誕生說話에서 孤雲은 신비한 출생을 한다. 孤雲父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요괴에게 잡혀간 아내의 자취를 밟아 찾아가던 곳은 금돼지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金猪를 퇴치하고 돌아온 후 얼마 안되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孤雲으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天女의 보호를 받아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해 준다. 이것은 앞으로 탁월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

62) 趙東一; “英雄의 一生과 흥길동전”,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한국고전문학 연구총서, 고전문학원 7, 새문社, 1981 1-20.

제조건이며 신화적 영웅으로서의 위치 확보이기도 하다. 古代小說에서 나타나는 胎夢과 관련된 출생은 아니지만 기이한 출생을 한다는 점에서 고대소설의 서두부분과 일치한다. 이처럼 신비한 신화세계에서 나타나는 서사구조의 수용은 향유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요소이다.

다음은 상강기의 破鏡奴婚姻說話다. 해변가에 버려졌다가 天女의 도움으로 성장한 孤雲은 홀로 서울로 향한다. 繡鏡賈라 하여 승상의 딸과 인연을 맺게 되어 신분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미약한 개인으로서의 孤雲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신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소설 구성상 절개에 해당한다.

繡鏡賈라 하는 보살것 없는 신분에서 승상의 사위가 되는 과정은 당시의 평범한 사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문장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신분상승은 지식인으로서의 누구나 바랄만한 일이었기에 진승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음은 入唐期 설화이다. 여기에는 入唐插話, 遇神人插話, 受難插話, 謫居插話, 歸國插話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 보내온 難題를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인물을 보내라는 중국 황제의 명령에 명실상부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中原을 향해 떠난다. 가는 도중에 神人의 도움으로 물이 없어 고생하는 도둑촌에 비를 내려 주기도 하고 쉼처로 부터는 간장이 물은 숨을 받고 간다.<sup>63)</sup> 天女는 孤雲의 신의함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심으로 위양을 보낸다. 하지만 神人이 준 숨이 있어서 그것을 뺏아 먹으며 연명해 간다. 고운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안 천자는 그를 고국으로 돌려 보내고 만다. 이러한 入唐期는 소설구성에서 위기와 절정이 혼합되어 나타난 곳이다. 入唐插話, 遇神人插話, 受難插話, 謫居插話는 위기부분이고 歸國插話는 절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소설의 절정부분에서, 致遠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날 때에는 광중에나 一字를 그어 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교만한 중국 천자를 훑어보며 이것도 네 땅이냐고 외치게 하여 그 광경을 본 중국 천자를 <下床頓首謝言>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소설에서 결말을 나타내는 證據物提示插話이다. 여기서는 入伽倻山했는데 자취를 못본다든지, 땅에 훑아 묻 孤雲의 지팡이가 아직도 살아 있거나 나무가 죽으면 孤雲도 죽을 것이라는 말을 남긴다든지, 崔氏의 始祖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물과 관련된 것이 있다로 결말을 맺고 있다. 이는 傳說의 한 특징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는 傳奇性을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63) 韓國口碑文學大系 資料, 23, 卷五.

이상에서 狐雲說話는 小說的 構成을 갖추어 이루어져 있기에 소설로 전이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狐雲說話가 小說化되어 어떤 변이가 이루어졌는지 표로써 대비해 보자.

小說로서는 異本考에서 알려진 바에 따라 鄭炳昱本과 金起東本의 두 계열 異本 중에서 金起東本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시에 他本을 참고하기로 하고, 신화로는 앞에서 논의했던 신화의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sup>64)</sup>

- 1) 崔沖이 文昌술에 제수되나, 그 곳 원의 아내를 잃은 번괴가 있음을 듣고 근심하다.
- 2) 아버지가 문창령에 부임하니 번괴가 생기고, 그의 아내의 종적이 보일래지다.
- 3) 아내에게 매어 놓았던 실을 좇아가 아내의 종적을 알다.
- 4) 아내의 지내보씨 사슴가죽을 이용하여 金猪를 죽이고 前任 원의 부인들과 함께 돌아오다.
- 5) 아내가 아이를 낳다.
- 6) 崔沖이 金猪의 자식이라 의심하여 버리다.
- 7) 하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天女(仙女) 또는 학을 보내어 기르다.
- 8) 아이를 데려오고 싶으나 최충은 체면과 남의 웃음거리가 됨을 꺼려하여 데려오지 못한다.
- 9)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樓臺를 지어주다.
- 10) 天儒들이 아이에게 자신들의 學問을 닦아 가르쳐서 天下의 文章이 되게 하다.
- 11) 중원 황제가 學士를 보내어 詩文을 겨루게 하다.
- 12) 중원의 學士가 樓臺에서 아이와 글을 화답한 후, 이에 굴복하여 중도에서 되돌아가다.
- 13) 황제가 大怒하여 신라를 치고자 石函에 鷄卵을 넣어 신라에 보내고, 알아 맞추는 글을 지어 보내라 하다.
- 14) 신라왕이 石函 속의 문제 해결에 고심하다.
- 15) 아이가 서운에 올라와 羅丞相의 딸이 資色과 節行이 있음을 듣고 기짓으로 繡鏡賈라 하며 羅丞相에 이르러 그 딸의 시물을 故意로 깨뜨리고 그 딸의 종(破鏡奴)이 되다.

64) 화소로서는 소설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면서 신화에만 나타나는 소설에는 알 나타나는 것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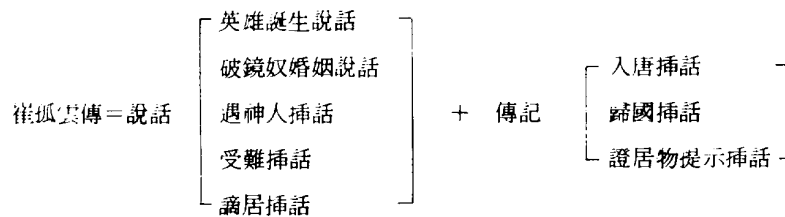
16. 파경노에게 말을 기르게 하다가 花鬪을 가꾸도록 하다.
17. 마침내 조정에서 石函에 담긴 鵝卵을 羅丞相(파경노 주인)에게 맡기다.
18.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며 사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다.
- A. 승상이 거절하다.(소설에는 없음)
- B. 딸이 효성을 방자하여 다시 사위 삼을 것을 요구하자 승상이 승락하다.(소설에는 없음)
19. 아내를 맞이한 후 시를 지어 승원으로 보내다.
20. 승원의 황제가 그 시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시지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하다.
21. 신라왕에 알현한 후 자칭 新羅 文章 崔致遠이라 하여 승원을 향하여 發行하다.
22. 瞻星島에 이르러 致祭하려다 龍子인 李牧을 만나 龍宮에 다녀와서 李牧과 동행하다.
23.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 비를 내리게 하다.
24. 神人들로부터 장차 鴨鵝와 그 내용책을 듣다.
25. 승원에서 學士와 問答하여 이기다.
26. 황제가 崔致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인하다.
27. 최치원이 괴와 符書로써 무사히 황제 앞에 이르다.
28. 최치원이 장원에 급제하여 더욱 황제의 총애를 받고 文信侯에 봉해지다.
29. 黃巢의 亂을 글로써 격파하다.
30. 승원의 사모들이 崔致遠을 시기, 거짓 참소하여 絶島에 귀양보내니 이 섬에서 仙遊하다.
31. 황제가 다시 최치원을 부르다.
32. 최치원이 도술로써 황제를 꾸짖다.
33. 최치원 귀국하다.
34. 최치원이 신라왕과 대립하여 伽椰山에 들어가 종적을 모르게 되다(不知所終)
- C. 승거물로써 최치원의 지팡이가 자라고 있다.
- D. 최씨의 시조가 되었다.
- E. 中國이 다시는 넘보지 않게 되다.
- F.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다.
- G. 죽어서도 후손을 돌보다.





실제 說話上에서는 根源說話에서 나타나듯이 英雄誕生說話(1~12) 破鏡奴婚姻說話(13~19)가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순수한 口傳說話로 이루어졌고, 入唐插話(20~22)· 遇神人插話(23~24)· 受難插話(25~27)· 謫居插話(28~30)와 歸國插話(31~33)를 합한 入唐說話(19~33)와 證據物提示插話(34~㉔)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崔孤雲傳』은 說話와 傳記的 事實의 結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說話로는 英雄誕生說話와 破鏡奴婚姻說話, 入唐插話, 遇神人插話, 受難插話, 謫居插話가 수용되고 傳記的 事實을 참조한 부분에서는 事實의 記錄을 基盤으로 記錄文學의 說話化 過程에서 나타난 入唐插話, 歸國插話, 證據物提示插話가 受容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說話와 小說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표 6>을 분석해 보자.

<표 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小說에서는 나타나지만 說話에는 없는 話素가 5개 있다는 점이다. 즉, 成長期인 破鏡奴婚姻說話 부분에서 話素14(신라왕 石函 속의 문제 해결에 고심하다)와 入唐後부터 入山하기까지의 화소 중 22(躑躅島에 이르러 致祭하려다 龍子인 李牧을 만나 龍宮에 다녀와서 李牧과 同行하다) 25(中原에서 學士와 問答하여 이기다) 29(黃巢의 亂을 글로써 격파하다) 32(최치원이 도술로써 황제를 꾸짖다.)의 5개 話素가 제외되어 있다. 왜 이러한 화소가 설화에는 없고 소설에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설화가 소설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것은 설화를 소재로 하여 소설화하는 데 작가가 내세우는 작가의식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14 화소(신라왕이 석함속의 문제 해결에 고심하다) 부터 살펴보자.

이것은 설화화소인 13(황제가 대로하여 石函에 계란을 넣어 알아맞추는 글을 지어 보내라 하다)와 화소 15(아이가 서울에 올라와 나승상의 딸이 자색과 절행이 있음을 듣고 거짓으로 繕鏡費라 하며 나승상댁에 이르러, 그 딸의 거울을 고의로 깨뜨리고 그 댁의 종이 되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상 이 화소는 빼버려도 아무런 부리가 없다. 설화에서는 이 화소가 없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삽입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소설의 形成時期에서 삼된 바와 같이 1655년 이전에 작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선의 정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國勢는 주위의 강대국에 비해 훨씬 미약해 있었다. 壬·丙 兩亂을 맞고난 이후이기 때문에 민중들은 민족의식이 짙었고 그에 따라 작가는 의도적으로 길으로는 약소국이지만 知的인 面에 있어서는 大國을 능가할 수 있다는 내적 우월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入唐過程에서 나타나는 화소 22(瞻星島에 이르러 致祭하려다 龍子인 李牧을 만나 龍宮에 다녀와서 李牧과 동행하다)이다. 이것은 화소 23(주민들의 간청에 의해 비를 내리게 하다)와의 관련성으로 볼 때 神異性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예비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 화소가 없이는 인간으로서의 孤雲이 자인을 다음대로 조절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여 도술을 부려 마을대로 할 수 있다면 入唐過程에서나 入唐後 당하는 受難生活이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孤雲을 등장시키고 그를 보련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서 龍子인 李牧을 수용한 것이다.

화소 25(中原에서 學士와 문답하여 이기다)의 경우는 어떤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汗에 머물면서 受難을 당하는 시기이다. 실제적으로는 약소국에서 온 使臣으로서 大國보다 힘은 없었지만 그의 학문적 내실은 大國의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우수했다. 그러기 때문에 大國에서 일어난 黃巢의 亂을 약소국의 孤雲이 檄書를 써서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다. 이로써 화소 31(黃巢의 亂을 글로써 격파하다)은 歷史를 탐독하고 孤雲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작가에 의해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화소 34(최치원이 도술로서 中原王을 꾸짖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설화에서는 단순한 흥미거리로서라도 함유될 수 있는 傳奇的 話素이지만 수용되지 않고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특히나 도술을 부린다는 점에서 흥미는 더욱 가승된다. 이러한 특이성을 작가는 수많은 傳奇小說에서 수용했을 가능성이 짙다. 壬·丙 兩亂後 수입되어 난부하기 시작한 중국의 傳奇小說을 탐독한 작가는 崔致遠에게 英雄像을 투영시키 地域的 英雄에서 民族的 英雄으로 급상승시키기 위해 그에게 도술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약소국이 당하는 울분을 실제 인물 崔孤雲을 빚어 中原 황제를 꾸짖게 함으로써 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65)</sup>

작가가 이 작품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 진민족의 의식형태는 斥漢思想이다. 지리적인 조건이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 先民들은 서북방에서는 漢

65) 崔龍道 “崔孤雲傳의 主題와 民族意識”, (『一山 金俊榮 先生 停生紀念 論叢』, 一山金俊榮 先生 停生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5.8)에서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族을 비롯한 強悍한 민족들의 위협과 동남방에서는 왜구의 무단한 침범에 괴로우를 겪어 왔다. 이러한 압박 밑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事大交隣이란 외교정책을 전통적으로 계승하여 왔다. 그러는 가운데 민중들 사이에는 그들 강대 外族에 대한 적개심이 자손 대대로 그 얼뭍 속에 축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곧 실제적으로는 역사상에 가장 親唐的인 崔致遠을 가공적으로는 가장 反唐的인 人物로 만들지 않고는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하게 한 민족의 요구였고 또한 그들의 강렬한 정신적 승리에의 열망이었다.<sup>66)</sup> 이런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여 작가는 실존 인물 崔致遠을 허구화시켰던 것이다.

작가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둘 혹은 셋의 기존 개념들을 결합시킨다.<sup>67)</sup> 거기서 표출되는 것이 作家意識이다.

상상력이란 無로부터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소간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sup>68)</sup>이기 때문에, 작가는 傳記的 基本 骨格 속에 상상력을 사용하고 史的 傳說的 意味의 수용과 변용의 변수적 작용하에서 기존 傳統과 개별적인 插話類를 요소로 활용하여, 작가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허구소설을 형성한 것이다.<sup>69)</sup>

실제 인물 崔致遠은 親唐的 人物이었으나 설화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설화 자체에서 향유층들의 향유 주제는 親唐이나 反唐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孤雲의 기이한 탄생과 재미있는 혼인 경위 및 입당 후 당하는 수난을 기묘하게 극복하는데 대한 놀라움 등을 주요점으로 삼았을 뿐이다.

반면에 史實에서의 崔致遠은 국내적 활동보다는 唐에서의 활동이 중시되어 있다. 入唐하여 黃巢亂을 상토하는 격문을 짓고 還路에 올라 영화를 누리기까지 했던 그가 唐에서의 생활이 곤란해질 무렵에는 신라로 들어와 唐에서 배운 지식을 펴보려 했지만, 좌절당하자 은둔해 버리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적 인물상이기보다는 親唐化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66) 鄭炳昱: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6, pp.219 ~ 221.

67) Lord Raglan: 「The Hero」, A Meridian Book, 1936, p.136 李月英: 「崔孤雲傳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1984, p.64, 再引用.

68) Lord Raglan, 앞의 책, p.208.

69) 李月英: 앞의 책, p.64.

그러나, 소설에 나타나는 孤雲은 시종 新羅人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小說의 5개 話素에서 그 의도는 드러난다. 이러한 의도는 作家意識으로 표출되어 “북방 민족에의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 내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중국 민족에게 과시한 것”<sup>70)</sup> 등을 나타내면서 한 편의 소설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崔孤雲傳』은 인물 崔致遠에 대하여 동정과 동경을 함께 지니고 있던 어느 작가가 기존 설화를 중심으로 史實, 기타 자료를 선택, 변형·수용·결합하여 작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과 民族意識을 그리려는 창작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70) 鄭炳昱; 앞의 글.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pp.205 ~ 207.

——;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pp.277 ~ 288.

李正鎬; 앞의 글.

李相澤; “壬·內兩亂의 斥外小說”, 「韓國古典의 民族思想」, 新丘文化社, 1974, pp.177 ~ 178.

## IV. 結 語

이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孤雲說話의 分布樣相과 小說化 過程을 살렸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고 本稿의 比價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삼는다.

첫째, 崔孤雲은 新羅 말기 사람으로 唐에서 배운 학식과 경문을 퍼보려 했으나 신라계층의 반발로 좌절되자 은퇴하여 각지를 배회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이 혼란한 시기이었음에도 難世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므로 후세인에게 선화적 인물로 영상화되었다.

둘째, 孤雲說話 중 탄생기 설화가 가장 분명하게 전승되던 곳이 孤雲說話의 發祥地였으며 주변 지역에서는 전승자들의 관심 有無에 따라 변이되어 탄생기 설화, 성장기 설화 또는 일생담을 함유하는 것으로 설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孤雲說話는 傳記的 類型에 따라 4개의 설화로 구분되며 각각에 수용된 原型說話가 있다. 탄생기의 英雄誕生說話에는 고대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요소인 金猪, 棄兒, 天女保護插話가, 성장기에는 종과 수인대 딸과의 로맨스가 등장하는 民譚이 수용된 破鏡奴婚姻說話가, 入唐期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入唐·歸國插話와 허구적 사실의 遇神人·受難·謫居插話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終世期의 證據物提示插話는 믿음과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설의 한 특징이다.

넷째, 고대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영웅이 일생 유형을 수용하여 영웅으로 형상화된 孤雲說話의 형성시기는 壬亂 후부터 丁卯·丙子胡亂 사이로 추정된다. 孤雲說話가 소설화되는 데는 설화의 일생담이 傳記性을 떠면서 소설구성의 5단계를 갖추고 있어 무리없이 소설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孤雲에 대해 동정과 동경을 갖고 있던 작가가 이상적인 삶과 민족의식을 표출하기 위해 전승되던 설화에 작가의 독창적인 5개의 화소를 삽입시켜 지역적 영웅에서 斥漢意識을 가진 민족적 영웅으로 형상화시켰다.

그러나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연구 지역이 남한에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자료가 28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지 못한 감이 있다. 中國史蹟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雙女墳에 얽힌 ‘崔致遠’ 전설이 <太平通載>에, <大東韻府群玉>에 ‘仙女紅袋’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설과 필자가 조사한 孤雲說話와는 꽤를 달리한다. 따라서 孤雲說話와 이 책들에 실린 설화와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인물 전설을 소재로 이루어진 古代小說과의 대비가 병행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과제로 남겨 둔다.

〈資 料〉

(韓國口碑文學大系 및 筆者調査)

		지 역	권수
1	최 고 운 담	서울 도봉구 수유동	1 - 1
2	최 고 운 담	서울 도봉구 수유동	1 - 1
3	최 치 원 담	서울 도봉구 미아동	1 - 1
4	최 치 원 일 화	경기 일성군 이죽면	1 - 6
5	최 치 원 의 지 광 이	경기 강화군 양도면	1 - 7
6	중국이 보낸 수수께끼 를 풀 파경노 최치원	강원 삼척군 삼척읍	2 - 3
7	최치원 선생의 지혜	강원 삼척군 삼척읍	2 - 3
8	최치원 선생의 탄생담	강원 양양군 서면	2 - 5
9	최치원이 공부하고 장 가든 이야기	충북 단양군 대강면	3 - 3
10	젊어서 재주있던 최치원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3 - 3
11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	충남 대덕군 화덕면	4 - 2
12	최치원과 자마성	충남 보령군 대천읍	4 - 4
13	최치원과 중국사신	전남 함평군 월야면	6 - 2
14	최 고 운 이 야 기	전북 원성군 원곡면	7 - 1
15	최 치 원 이 야 기	전북 원성군 원곡면	7 - 1
16	고운선생의 짝지름꽃 아침은 나무	전북 원성군 원곡면	7 - 1
17	최고운 선생이 꽃은 기 야산 작자	전북 장수군 자천면	7 - 5
18	최 고 운 의 출 생	전북 영덕군 달산면	7 - 6
19	최 고 운	전남 진양군 남곡면	8 - 3
20	최 고 운 일 화	전남 진양군 대곡면	8 - 4
21	최 고 운	전남 거창군 거창읍	8 - 5
22	최 고 운 이 야 기	전남 거창군 가조면	8 - 5
23	최 고 운 선 생	전남 거창군 마리면	8 - 6
24	최 고 운 선 생 전 설	전남 김해군 신영읍	8 - 9
25	최 고 운 전 설	전남 김해군 옥산면	8 - 9
26	삼백자가 낳고 학이키 운 최고운	전남 의령군 정곡면	8 - 11
27	과 경 노	제주 북제주군 구좌면	9 - 1
28	최 문 상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권사조사

## 參 考 文 獻

### 1. 資 料

- 「崔孤雲傳」, 金起東 所藏。  
「崔文獻傳」, 鄭炳昱 所藏。  
「崔忠傳」, 大朝鮮國紀元 492年(1883)癸未 8月 發行。  
金富軾; 「三國史記」。  
— 然; 「三國遺事」。  
朴榮濬編; 「韓國의 傳說」, 서울, 韓國文化圖書出版社, 1972。  
韓國文化放送株式會社 編; 「傳說따라 三千里」 서울, 東西文化院, 1966。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서울, 通文館, 1958。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2。  
海東異續, 〈補崔致遠〉, 「韓國文獻說話全集」 6, 東國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81。

### 2. 論 著

-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서울, 精研社, 1959。  
\_\_\_\_\_ ; 「韓國小說發達史」(中), 「韓國文化史大系」 V,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67。  
\_\_\_\_\_ ; 「韓國古典小說研究」, (서울, 教學社, 1981)。  
金東旭; 「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大田, 湖西文化社, 1971。  
\_\_\_\_\_ ; 「國文學概說」, 서울, 民衆書館, 1974。  
\_\_\_\_\_ ; 「國文學史」, 서울, 日新社, 1981。  
\_\_\_\_\_ ; 「한글소설 坊刻本の 成立에 대하여」, 「郷土서울」, 8, 서울,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60。  
\_\_\_\_\_ ; 「許筠의 文學과 혁신사상」, 「한국문학연구총서」 7, 새문사, 1981。  
金舜瓚; 「地下國大賊除治說話와 李朝傳奇小說의 構造對比分析」, 「口碑文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金烈圭; 「韓國文學과 人間像」, 「韓國思想大系」 I,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



- 金烈圭；「韓國神話와 巫俗研究」，서울，一潮閣，1977。
- \_\_\_\_\_；「韓國民俗과 文學研究」，서울，一潮閣，1972。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제주，조약들，1983。
- \_\_\_\_\_；“濟州島民謠의 特色”，濟州大學，1964。
- 金勇範；“崔孤雲傳研究”，서울，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1980。
- 金鉉龍；「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서울，一志社，1976。
- 朴晟義；「韓國古代小說史」，서울，日新社，1964。
- \_\_\_\_\_；「韓國文學背景研究」，서울，玄岩社，1972。
- 徐大燾；“軍談小說의 構成과 作者意識”，『啓明論叢』7，大邱，啓明大學，1970。
- 成賢慶；“李朝小說의 ‘謫降’ 類型과 그 作品構造”，『東亞文化』18，大邱，嶺南大學校，東洋文化研究所，1977。
- \_\_\_\_\_；「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大邱，嶺南大學校出版部，1981。
- 成賢慶；“崔孤雲傳研究”，『文理大學報』11，嶺南大學校，1978。
- 薛盛璟；“崔致遠傳研究”，『延世語文學』5，延世大學校 國語國文學科，1974。
- 孫晉泰；「韓國民間說話의 研究」，서울，乙酉文化社，1981。
- 申潁植；「新羅王位繼承考」，『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1971。
- \_\_\_\_\_；“新羅史의 時代區分”，『韓國史研究』18輯，國史編纂委員會，1977。
- \_\_\_\_\_；“三國史記 列傳의 分析”，『韓國史論叢』3輯，誠信女子師範大學 國史教育學會，1978)。
- \_\_\_\_\_；“新羅兵部令考”，『歷史學報』61輯，歷史學會，1974。
- 安啓賢；“韓國佛教史”(上)，『韓國文化史大系』Ⅱ，宗教哲學〈上〉所收，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刊，1979。
- 梁光錫；“崔孤雲의 思想과 文學”，『韓國文學論』，우리文學研究編，서울 日月書閣，1981。
- 유병운；“崔孤雲傳研究”，延世大學校 大學院，1982。
- 李基白；「韓國古代史論」，서울，探求堂，1975。
- 李能雨；「古小說研究」，서울，三友社，1975。
- 李石來；“古代小說에 미친 野談의 影響”，『省谷論叢』3，서울，省谷學術文化財團，1972。
- 尹榮玉；“崔孤雲傳攷”，『嶺南語文學』3，嶺南語文學會，1976。
- 李正鎬；“崔孤雲傳研究”，『國語國文學論集』6，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1966。
- 李月英；“崔孤雲傳研究”，全北大學校 大學院，1984。
- 張德順；「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1970。
- 張德順；“崔致遠과 說話文學”，『아카데미論叢』4，1970。

- 張德順；「說話文學概說」，서울，三友社，1976。
- 鄭炳昱；“崔文獻傳 紹介”，「庸齋白樂濬博士還齋紀念國學論叢」，1955。
- \_\_\_\_\_；「國文學散策」，서울，新丘文化社，1966。
- 조동일；“傳說的 形成과 意味”，「冠嶽語文學」第三輯，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民族文化叢書」1，嶺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1979。
- \_\_\_\_\_；「韓國文學思想史試論」，서울，知識產業社，1978。
- 曹壽鶴；“崔致遠傳의 小說性”，「嶺南語文學」2，大邱，嶺南語文學會，1975。
- 趙潤齊；「韓國文學史」，서울，東國文化社，1963。
- 趙芝承；「韓國文化史序說」，서울，探求堂，1964。
- 曹喜雄；「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서울，雪雪出版社，1981。
- 崔敬淑；“崔致遠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1980。
- 崔來沃；「韓國口碑傳說的 研究」，서울，一潮閣，1981。
- 崔三龍；“崔孤雲傳의 主題와 民族意識”，「一山 金俊榮先生 停年紀念論叢」，一山 金俊榮先生 停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1985.8。
- 崔 誥；“野談과 李朝小說”(上)·(下)，「文化批評」5卷 2號，5卷 3號，서울，亞韓學會，1973。
- \_\_\_\_\_；“朝鮮時代小說의 範疇에 관한 考察”，「民族文化研究」9，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1975。
- 韓國史研究會編；「韓國史研究入門」，서울，知識產業社，1981。
- 玄吉彥；“傳說的 變異와 그 意味”，「韓國言語文學」17·18輯，韓國言語文學會，1979。
- 黃淇江；「朝鮮王朝小說研究」，서울，韓國研究院，1978。
- G. B. Tenyson；An Introduction to Drama,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7.
- Kenneth W. Clarke & Mary W. Clarke；Introducing Folklore, Holt, Rinehart & Winston, Inc., New York, 1963.
- Lord Raglan；The Hero , A Meridian Book, 1936.
- Northrop Frye；Fables of Identity, A Harbinger Book, New York, Burlingame, 1963.
- Peter H. Lee；Korean Literature ; Topic and Theme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1965.
- William Kenney；How to Analyze Fiction, Monarch Press, 1966.
- 關敬吾；「民話」，日本，岩波新書，昭和 33。

## 최 문 장

최문장은 일흔은 최치원이로돼 그 최문장 부친이 좀 나라에서 고을 원살이를 보내는데, 기기는 가며는 간 날 밤에 그 관원의 작살 잃어부러, 작살 잃어부니까, 그러나 나라의 명령이라 아이 갈 수 웃고 죽기 가까운 작살 잃어부니까 부디 관원작이도 하고 싶실 알고 이렇게 해서, 이 고을 은 총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최문장에게 명령을 하니깐 나라의 명령으로 원살이를 갔어. 삼장일(향장을) 모시와서,

“어떤 일로 그렇게 되는가?”

“어떤 일이 있는 걸 이렇게 아느냐고 안 수 없으니 그 때문에 이런, 항상 사고가 나는 것 입니다.”

고 하니깐, [조사자: 그 고을 사름덜이 마썸?] 응, 그 삼장(향장) 일 보든, 그 고을 관속들이 모여서 하니,

“아, 그러냐?”

고. 아, 이젠 최문장 부친은 뭐 어떻게 해부 도리도 웃고 하니 이젠 가족은 예, 으레 그 날 밤이 잃어 불 걸로 보고, 해서, 그 삼장일(향장을) 보고,

“맹주심, 향실을 많이 모여 들어라”

고. 뭐 총 그런 것 정도는 뭐 관원의 명령이라 그 고을의 실력 많이 모인 갔으니깐 그 높을 이렇게 이어서 도로길 감았어(손으로 감는 시늉) 감아놓고, 밤에는 자기 가족을 잃어불걸로 바가지고 이젠 날이 어두우니깐 가족 홀목에 감은 실 도로기 한 곳을 심어애고 했는데, 총 아니 치 아녀서(아녀게 아니라) 마 요새말로 마 일한 시 언두 시가 가차의 가니 며 뽕뽕이 일어나 터니 빛이 검으터히게 흰터더니 며, 가족은 었고, 방에서 실도르키만 달달달달달달 풀어지는 거라. 그 관원 작살 차 가부니까, 아, 이젠 뭐 관원을 어찌해 볼 수는 없는데, 이 실도르키가 다 풀어질라말라 거제 다 되다가 중단이 되어. 되니까,

“하, 이거 수상한 일이다”

고. 그러나 이젠 ‘이, 내가 이 실 근거를 인애가지고 그 내력을 조사해 보겠다’고, 예 요런 실신을 갖고 마, 그 날이 새가니깐 우선 그 부하관속 그 종개나 데리고서 이렇게 웬 하니 (부인을 찾을 준비를 마쳤음을 뜻) ‘이 실 도르키가 중단되니까 이 실 근거를 조사하고 가 곳을 알아보겠노라’고, 해서 아, 이젠 새벽참에 그자 실 근거를 파질성 실으니깐 이제 나산 실은런 큰 기로말 조사해 들어가는데, [조사자: 혼자만?] 아니, 관원이니깐 그 부하달 데리고 가는 데, 아, 이 실이 아주 심심 산중으로 들어갔어. 그 실 근거말 조사하고 이젠, 가단 보니깐, 가다보니 거 아주 산맥 큰 응암정벽 석벽 틈으로 그 실이 기여 들었어. 실이 기여드니까, 아 이젠 터해 볼 순 웃고, 아, 이렇게 방황터더니 그 칠준 부하달이 이렇게 보다서 아, 뭐 저리 석벽에 들어갈 순 었고 헤여분 순 웃고, 총 석벽달에 나가 버틸토 고르고 하니, 이젠 칠준이 그 관원에게 말하되,

“산 문은 밤에 열린다 했으니 이렇게 있어봐도 볼 수 웃고 집이 돌아가서 음식 자시고 밤 들 건 오라부민 어떨니까.”

하니, 그 양반도 그런 저런 글 읽어 잔 아는 양반이다.

“아, 그렇다.”

고.이젠 돌아오란 밥도 먹고 그 석백으로, 실 근거가 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다 현 것만 소사가 뻔으니까. 인젠 밤이 되니 낮이 본 근거가 있으니까 그 곳을 찾아가고 보니깐 춤 아닌게 아니라 (아닌게 아니라) 그 문이 열려졌으니까 이젠 글로(거기로) 그 부하당은

“너넨 저 멀리 밀림지역에 은신하고 있으면은 죽으나 사나, 나는 내 혼자로 이 속을 들어가 보겠노라”

고. 아마 춤 용감한 학오방인데, 해서 인젠 자기 혼자 가만 가만 몸을 은신해서 들어가고 보니깐 춤 변유전지 비인감, 뜬 세계가 있어. 환한 뜬 세계가 이선히니 아 춤 거,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허명 막 가고 보니깐, 머 최문장 부친 보기에 뭐, 이런 방안에다 (자신의 방을 가리키며) 그 부인이 이렇게 (정좌해 앉으며) 앉았는디 큰 돼야지가 이 무릎을 비고서 누어들어서 그 머리에 닐(이) 잡으라고 해서, 닐 잡으라고. 이러니까, 아 이젠 아무리 돼야지지만은 그, 사문을 그렇게 차다(테러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뭐 여자가, 남자도 아닌 여중 입장에서 뽀수 웃겨들. [소사자: 멀리서 영 보니까 그 추후 뽀수난?] 응. 그래서 닐 잡으라 하니까 이렇게 닐 (이른) 잡는처럼 허면서 그 어느 영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닐 잡으면서,

“게나 서나 당신은 세상에 아주 만고 영웅이라.”

“응, 그렇다.”

고. 나는 갈도 무섭지 않고, 물도 무섭지 않고 불도 무섭지 않고 난 원 아무것도, 내 몸뚱이에는 뭘 걸드렸자 꼬박을 안원다고 하니 그 돼야지도 매(죽을 때를 뜻함)가 된 돼야지라 그 부인이 작(그렇듯하게 보이는 태도) 하는 말이

“그러나 세상에 하나 기(辰)헐거 없는 법은 었다고. 뭐이던지 서로 상극이된 것이 없는 법이 없는디 당신도 하나는 기(辰)하는 것이 이실 것이다.”

하니, 아 이젠 돼야지가 하는 말이 응, 그렇다고 다른 것 무섭지 않은디 녹피가죽물을, 사슴의 가죽물을 꿰구녕에 넣던지 사슴의 가죽으로 꿰구녕을 이렇게 뚫르면 죽기는 머 썩소리 못하고 세상을 버리게 된다.

“그기 하나(하나가) 기(辰)한다.”

“아, 그러냐”

이 부인이 문득 생각하니 그 세부모네 안티 재산 전례를 인케 받은 때에 쇠대 끝, 옛날 부새침이던. (허리춤을 밟지며 부갓집을 일취 꾸미미를 녹피로 묶는다는걸 뜻하며) 이리케 해서 하니 그것은 항상 차고 다니는 거니까, 하, 이젠 문득 생각이 세부모네 안티 쇠대끝이 녹피가죽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에이, 아마키나(아무덜든지) 내가 이 늬음, 가죽을 입에 붙어 넣어서 춤(춤)을 한바탕 받아 온다고”

겐, 가죽을 입에 그자 붙어서 걸근걸근 씹연 막 그니으러가지고(가죽을 씹어 부르게 하여 그 진을 내게 하여) 춤을 한바탕 꿰구녕에, 그 니 잡노라고 해서 귀벨란 있는데, 그냥 그디로 받아부니 뭐 꼬마이라(죽어버렸다는 뜻) 그 돼야지도 산 뻔 서로, 뭐 그렇게 말을 들었는지 말었는지 모르지만은 말도 나누고 헛지하는 머 죽어부니 권편이라. 아, 이세계는 뜬 세인이다

“자, 내가 갈 길이 어디냐? 고. 원수는 갔으긴 갈아 났지만 내같이 춤 이런 가련한 일이 어디시랴”

거, 인간 생각도 없고요. 원수는 갓 세워질걸 어찌, 원천 생각이 갈았지만은 죽기 갈던 옷  
다 이겨, 동시남북 배 동시 부지(不知)니까 돼지가 차서 외부니까 어디로 왔을지도 모른거  
주게, 그래서 세심 자탄을 부르짖었어.

“내 관자가 뭐라더니 어외같은 화경이 되어서 지반, 이 돼야지는 광땅 두드리면서 (바닥을 치  
는 지남)이 돼야지는 뉘분을 갈았지만은 내 갈 바가 막연히니까, 뉘 손 이런 가동한 일이 지  
라”

고 해서, 그러하여 막 자탄을 부르짖으면서 뉘 지람을 채기들, 하니, 최문장부친은 어디 갈 것  
이 온신 해서 보니깐 또 막아지하고 서로 말을 모르고 후다지 돼야지는 옳고도 옳고 뉘 일어선  
돼야지를 발로 탕탕 차면서 (흥분한 어조로),

“이들의 원수는 갈았지만은 내 갈길이 어디냐”

기, 그 부인이 막 자탄을 부르짖었다 말이야, 최문장부친은 건넌이 온신해 들서 있더지

“뭣세웠다. 제나서나 이 죽은 문거를 꼭 말하해 보자”고.

고, 서로 여기(현세상) 있는 때, 그 높은 자문님은 이 자한 향기가 아주 좋은 걸로 이기 좀  
기분 나쁘면 향기를 마시고 해서, 부배(부부)같이 있는데 일거나 죽어 죽지 못하면 저 내리서  
서로 향기 마시고 제나서니까, 대감의 자한 있는데 자한 향기나 어외 분 나고 그 자한순차(주머  
니)는 향기 아주 귀중한 모듬이나 다름없는 걸로 마치고 있는데, 이 죽은(주머니)를 관으로 그  
자한 향기를 꼭 피워어, 러니, 아 풍순으로 이제 그 부인 모듬에 자한배개가 곱든다니까 이제 하  
디움, 그 남편과 있을 때 그리 향기만 마왕지마는,

“우리 남편이 여기 오리를 막아하라고 온 리도없는 것이라 고 뉘나, (돼야지는 관란 두들기  
면서) 만약, 오랐다고 하면 어서어서 나오라 주시오, 이 돼야지를 왜한리 죽어서 원수는 갈았으  
나 나오라 말라.”

고, 들구 양탄이라, 이런 최문장 부친은 가만히 온신래리 돌함만 보더지,

“헤이, 이놈을 막 내 죽어잔”

고, 아, 이제 옛부(옛주머니)를 죽 것들 막 걸러가지고 막 그 문거처럼 그 자한을 막 이렇게(두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머니를 끌어 내놓는 지남) 내렸다 말이야, 하이고 그 같이 조금 허다것 보단도  
막 코가 깨졌거든, 막 지남 향기가 막 차라히해 들어오니 꼭 모듬은, 죽 것은 올랐단말이어.

“만약 꼭 오랐다면은 어서 나오라고 이 지살은 뉘 재질이나하 어서 빨리 나오라가지고, 이걸  
관일어나하 어서 빨리 나오라 말라”

고, 막 여길 북걸 하는 기라, 최문장 부친은 가만히 웃시로 있더지,

“흔바 죽지 두번 죽어야지 뭣세웠다고 나군다고”

이제 자한은 단아지 턱 차고,

“내가 여기 왔다고 이 재정은 뉘 재성이나하 어서어서 빨리 나가자 좀 나가야 한다고 그  
러나 모너(병서) 그 관위의 장지들은 배려하지 어세했느냐?”

“저더 가두고 있다.”

“다 내지라.”

고, 게지, 여러 관원이 각지던 일어부턴 그 여길 약간 일어 지니깐 나 데리고 이제 나오랑어, 이  
젠 돌아오라지 나라에 복면하세,

“이러지리해서 관원이 가솔담을 잊었들다 죽기만은 아, 이것을 조사에 가지고 가솔은 배려지, 모

“은 먼저 관원의 가수들을 이제 데려다져 보내줬다.”

고, 이렇게 하니,

“아,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 그 기회로 인해가지고 최문상 모친이 수태를 가졌어. 수태 가전 죽식을 만나  
까 딱 그 시일은 이렇게 참고에 부 때 최문상 부친 모음에는 돼야지새끼라고, 머리에 개산이 났  
어〔조사자: 뱃던 만에 낳았다 마중?〕 예, 그다 카운 후에 마, 짐작만에 낳은 걸디, 그렇게 해서,

“그 시일을 참고에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돼야지새끼인 것이라 그 더 카운 후로 봐진.”

그러면서 죽식을 만나까,

“돼야지새끼 자 강물에 던지불라”

고, 조사자: 제난 그 돼야지 낳던 허 것은 짐작만에 난 길 보단 꼭 사관하고 2탄 마중?〕 아  
니, 그러디 그길 돼야지새끼가 아니요, 기, 산일기로 회환 그 총 특수한 물건이다. 그런 큰물건이  
죽을 때에 그 앙기로 하허이 가지고, 예, 최문상이 웨이. 허니까, 참 모롬에 었고 총 신이어나 다  
룬없었는데,〔조사자: 형제는 사랑모양이요?〕 압, 조꼴도 사랑에 틀림 었는데, 그 부인은 모기  
에 순 사람의 자식은 확실한다, 그 시일이, 그렇게 돼야지살디 가 운 돌(月)수나 날(日)수나  
에 이리 비슷허니까 돼야지새끼라고 허는 것도 그 남편이 허는 말로 틀림이 웃고, 제나 부인 모  
기에는 돼야지새끼가 아니요 사람의 새얼디 다지불라 허디 그 남편의 명령이다 어찌할 수가 없거  
든,〔조사자: 게 강에도 부인 생각하는 거허고 다른 것이 있을 거 아니우파.〕

〔Tape 교환〕

음, 차이가 있릭 예, 마 딱 그디 간 잡혀가지 돼야지가 죽자, 돼야지를 죽이자, 그 앙기로 회환  
의 나래 났거디까, 딱 그렇게 웨여 부려주거게,〔조사자: 예,〕 제난 부인도 참 모롬 거주게, 그  
맛 사람이 아니요, 쥔 허디 이리 그 남편의 명령이라 흘 수 웃이기성귀(기적귀)뜨시게 해서 쥔  
도로 쥔 통어가지고 ‘강물러래 데려불라’로 허지마는 차마 이거 물에 넣을 순 었고 이강2에다 이  
런게 (예에 정남정자를 잡고 바닥에 돌이더) 가(가시) 놔두고 오란디, 오란디, 그 물은 아이가  
나디까 이 좃(젓)은 불어가고 뵈남은 나디(되디) 뵈으니까,

“하,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버 물은 쥔생의 입엿 갔건 뵈 했던 뵈 웃어뵈던 쥔위히 준다.”

고, 남편이 직와 불라고 이렇게 허니까,

“어머커나(어쩔든) 가고보자”고,

가고보니 그, 자기 봉헌 대로 지성기 문텅이가 그대로 있어.

“아, 물은 실려도(추워서도) 죽어실테지”

했는다. 이렇게, 슬 배송허게(자신의 눈을 크게 뜨며) 죽지도 않고 살위, (회차 자신도 놀라며)

“하, 이거 쥔! ”

이제 홀수웃이 죽지도 않고 살아지디까 봉은 좃(젓)이라 좃(젓)을 주날 좃은 ‘쥔쥔’ 뵈인  
좃을 먹거든, 하, 이젠 다시 그렇게 도로 쥔 쥔 봉허연 대부분 두고 오랐어, 경허연 은 사용을  
고 강 번이, 오날(오늘)이나 날이나 강 보던, 뵈날 그게 고기라.(죽지않고 살았다는 뜻)봉은 좃  
이날 좃은 뵈이고 쥔, 돌아 오라가니까 남편이 모기에 어디간 다지불라고 허디 어디간 물어뵈면  
서루 쥔매이래 뵈키는 걸 남편의 눈에 나타났어,〔조사자: 아,〕 이, 어쩔 남편이 카시 보든 쥔  
하뵈,

“강물로 다지불라 허디 거 어디가 물어 놔뵈서로 그 돼야지새끼 쥔매이래 뵈키지 허허는 거

나?”

호령을 쫓아,

“아 그렇지 않다. 그 당신은 돼야지새끼라고 하지마는 내 보기에겐 순전히 사람의 것이 확실 허는데 그렇다고 더저볼라 하니 차다 이, 물러낸 놓을 수 었고 아무 강근의 가서 두고 있는데, 어찌 물론 짐승이 뜰어버던 뭇헛던 실려도 죽을 거고, 이리니까 놔두구서, 뒷날 강 모며는 그제 그거. (변함없이 살아 있음을 뜻함) 눈이 배양하여서 혼수없이 내 불은 뜻밖이고 왔다고. 경헛 이날 저날 허는 것이 오늘까지 흠, 허게 띄어시, 오늘도 가고 보니까 눈이 배양하여 었고 좃은, 뽕뽕 불은 좃. 그, 산 새끼니까 좃을 맥어두고 오긴 오랑노라.”

아, 이젠 최문장 부친이,

“아, 그러니 실지 강변이 간 놔둔 게 오늘까지 살았느냐.”

“아, 그리했다.”

“계민 가고 보자. 그 가서 그리치라.”

이젠, 강변이 가고 보니까 이 강근에 뭇 이 지성귀 뭇통 거리 (기저귀로 싼물건)가 있어. 아 그 눈을 훌훌 헤쓰고 보니까 배양하고 제법 사람새끼가 되던, 좀 살인 배양페랑 되려거든 (살아서 말뚱뚱뚱하게 자신을 분다는 뜻) 이젠 최문장부친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헤싼 보니까 사람의 새끼는 확실하게 되는데, 최문장 부친이 그만히 생각이

“어찌거나 내가 좀 잘못이 되었으니까 이 아일 데령강 질루자.”

아, 이젠 이렇게 싼 (손으로 시늬) 데려 올라고 흥터니 흥터니 그, 어디 강으로 어떤 서녀 (선녀)가 보기에 사람 같지만 신인이주게. [조사자 : 예 / 서녀가 나오시,

“거 어찌 남의 자식 데려가느냐?고, 어찌 남의 자식 데려가느냐?”

아, 이젠 최문장 부친도 그자 인간이 아닌줄 알아서,

“과연 그저 부도한 인간이라 모든 걸 몰라시 그저 돼야지신디 가 오니까, 돼야지새끼라고 봐서 강물에 던져볼라 하던, 사실대로, 그 저, 부인이 배양(며칠) 강근에 나들어가기에 너 어디 물어두고 이 돼야지새끼 뜻밖이래 뭇기지 않는냐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 지방코지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오랑 보니까 나 보기에도 사람이 존식이 확실하고 이렇게 하니 짐의로 데령강 질루자고 합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이 아이는 부모와 인연이 없는 아이라고, 여기 더장 (던져) 내부러시 어떤 아이가 그대로 살 수가 있느냐고. 만의는 그 참 어르 (어름—주위)에 승려시 (실려서) 죽을 겨주마는 천심에, 우주시 학의 새가 내려와서 후 나래 끌고 후 나래 더프고 (털고) 학의 품에 손을 자 니깐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 부모 아니더라도 이 아이는 아무랑지도 아녕 (안해지) 살아갈 수 있다고. 기, 데려가지 못한다.”

아 이제 최문장 부친은 그만히서 생각이,

“하, 거 참.”

자, 그 형편을 보고 그대로 오를 짓도 못되고 이젠 그 여승모고서,

“이까, 상당히 미안하시려는 부모와 인연이 없다고 아리니까 만약 그렇다면 짐이 데려가지 못할진 소산이고 헛디, 여기에 그 막(幕)이나 짓어서 그 만에 좀 비닐류이나 방지회도록 해서 이를 봐 주면 어떨까?”

“아, 그건 좋다.”

“그자 그디 봐뚱서 붉은 쫄이나 맥이겟수다.”고 허니까.

“아, 그건 좋다. 어서 그렇게 하라. 집이 데려가진 못한다.”

허니, 이젠 그 뒷날은 쫄백이고 그러저러 뭐 그런 사름덜, 그 뱃게원, 뭐 일 이년 호날 쫄도 쫄이 먹으나마나. 그자, 머 그자 사름(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헨디 서너설 나(되어)가니까 쫄 문장 부친이 좀 커 갈수록 점점 아깝기도 허고 사름이 새긴 확실허고 이러니까 아 이젠 아이 사는 막(幕) 옹 가시 놀다 오고 이러는디 호름은 이런 주랑(쇠) 지랭이름(긴 담뱃대를 가리키며) 지프고 가 놀다가 올 때 이 지랭이 잊어붙고 오랏어. 잊어붙고 오랏는디,

“에이, 내 다운 가 때랑 가지고 오던 뉘테지?”

혜서, 다운 강 놀다가 이젠 오게 되니까,

“아, 나 진번이 그 주랑을 내부러지고 가 겠는디 그 주랑이 어떻게 됐는가?”

허니,

“아, 모르쿠다.”

머 어떻게(양반을 불러며) 진 놉인디, 어디 요맹헌(요맹헌) [부젠을 들어 보이며] 놉을 보 이명,

“이거나 기우짜?”

“아니, 나 것은 진 것이다.”

“아, 이거 모살(모래) 바닥에 글을 쓰느라고, 막 몽글라시(달아져서) 이렇게 풀랏수다.(뿔 아졌유니다)”

츨, 그 실인안터 글도 배우고 모살 바닥에 막대로 글 쓴 공부들 허면서 공부헌 사름이 거 인카에게는 배운 선생이 엇는 사름이주. 그래서 칠 세가 나니까, 향시 툼들이 아버지는 그디 놀래 가는데, 칠세가 나니깐 그 아버지가 놀래 갔으니,

“다시랑 이곳 쫄아오지 마십시. 저는 이곳을 떠나야 될 거니까 쫄아오지 말며는 머, 아들 삼 번 못하드래도 나는 절대 최가의, 아버지 아들이 될 거니까 여기 쫄아 오지 마십시.”

허니 이젠 부자간이 갈렸어(웃음). 이 아이가 여덜 가는고 허니깐, 벌써 그 국문에 난 사름 이고 혜서 서원 나라에 아주 그 제일 최고 높은 정승네 집으로 떡 들어갔어, 들어간,

“얼어 먹는 아이 됩니다”

요맹헌(얇은 채로 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작다는 시늉을 하며) 그 칠 세난 아이가 그자 자기 혼자 얼어 먹으래 땡긴다고 거지로 혜서 간, 허니까,

“거 받주라.”

고. 허니까, 먹고서 그자 그런그럼 어디 그디 머 소막(牛幕)이나 아무디나 그자 굴목 안이나나 지해서 쫄차당 그 때(식사) 먹을 땐 가시민 안줄 수가 없거든. 그 어린 거니까, 제연 거기서 얼어먹고 살긴 살면서 이렇게 보니 그 아이 그자 보통 아이가 아니니깐 보니 툼이 쇠상젠디 질 내중 툼이 보니깐 츨 저런(방에 걸려있는 거울을 가리키며) 거울을 툼 받아 앉고 머리를 쭉쭉 빗으며. 쫄문장이

“옛따, 모르겠다. 씨발 년!”

뚱뚱이 가지고 그 거울을 딱 맞혀 버렸어. 뚱뚱이로 거울을 맞히니깐 거울이 깨질진 심이거든. [조사자: 기분 나쁜 맞혀분거라 마쉴.] 그 지집년(제집)은 뺨라 앉아서 머리빗고 이렇게 호



나까지. [조사자: 아, 자키는 딱 일러고 허는디.] 음, 제서 돌맹이로 거울을 맞히니까 깨질 건  
스릴이주께, 훑 돌아서고 보니깐 그 거지새끼가 돌맹이로 거울을 맞혀버렸어.

“하, 이들의 새끼 인젠, 뭇뭇 돌맹, 오랑 발판 얻어 먹어도 즐시. 이 미 현 거울을 깨붙인 되  
느냐?”고.

“그, 그 사름이오 제 사름이오 하 어제 학러고 했웠오. 그 미 나는 그 어린 소칭(철부지)  
로 자파라(장난) 러난 모니까 그렇게 뉘 낀디 일부러 깨라고 된 것도 아니주마는 혼수 있어  
요. 그자, 나 종신 당칠때 김의 『물물하니 집』이다 해서 손삼이로 샅테디 기 어찌 용서애 난  
라.”

고, 허니 거 어쩔 수 없거늘, 자키 몸 다바라니까 어쩔 수 없거늘.

“거 무관 아니라”고.

거, 글로부터는 성명없는, 이 얻어 먹으래 당기는 기에 새끼니께 기어갈 뉘라고 허는고 허니  
깐 거울 깨 이이라고 일름은 파경(破鏡)이로 됐어. 거울 깬다고, 성혜 부르짰 허민,

“파경아?” 해서.

“파경이 게 있느냐?”

“예.”

해사 삼길 살면서도 거울 깨버릴 말짢똥 아끼왕은 부름이 부만시, 거 그자, 진인양디 배우 글  
이니까 미 무슨 거 영 허는 데 허당 ‘나도 그만쟁원 같은 혈 줄 아드라요, 죽시 강, 무슨 글 짓  
는 거나 쓰는 거나 미 보니 아, 이 거지새끼가 어디서 배웠는지 미 된초 그, 그만 높은 양바들  
보담 훨씬 이십이라.

“야, 어디간 글 배웠느냐?”

“뉘 어디간 배우게 아니라 나대로 배웠지디. 내 아무런 거지로 이리께 풍이먹을 지라도 그대  
에게 띄이들지 떨어지게 업노라.”

고, 하면서 이렇게만 차차 차차 붙어서 서로 말을 논하 카니까 방도 좌우 눈화지고(나누어 짓고)  
허디. 마흔 그, 때가 그렇게 된 가지고 중국쪽은 한산 이 한곳에 사름이 있는가 없는가 사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석함에 계란을 보서 딱 봉해서 보냈어.

“이걸 알아 올리라.”

허연, 나라에 보내디 일름은 만조 백관을 모더시,

“이거 누구를 알겠는가?”

해일 높은 양바 그 파경이네 죽임을 모든 장관들은 ‘제 양바 지간애붙민 모르민 목아사니께, 만  
리 웃어붙민 다른 사림도 올라가고 허디,

“아무 정승이 아니를 알 자가 없을 겁니다.”

허디 아, 이젠 일름은 모든 대신이라 의논라니까 그 파경이네 죽음이 양바가 아니면 알 자가 없  
다고 허니까, 아 이젠 나라에서는,

“너 이거 알아 올리라.”고.

“모든 대신들이 의논하여 고안중 민선이 아니라 알 자가 없다고 허니부 당던히 알아 올리야 할  
게 아느냐?”

명령적으로 딱 이리께 허니 이걸 모르민 이거 물어지려 만더야, 수재 마림이어, 아, 이젠 그  
달은(조정에) 갔다가 그, 대왕이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디간 그자 가슴이 ‘툭’ 타지고 머리글

이 마파, 집이 돌아와선 그 날부터 며 음식, 무슨 먹을 생각 웃고 바로 ‘탕’ 드러놨지

“음식 필요없다. 대동강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 무슨 일이나?”

“자, 나라에선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대를 탁탁 두드리며) 중국에서 석함을 온 걸 날마다 안 아 율리라 했는디, 나는 알질 못허고 하니, 그러나 저러나 이걸 몰라도 목아지고, 안 재주는 엇고 이러니깐 대동강물에 빠져 죽는다고 음식 필요없다,”고.

대감이 음식을 안 받아노니 그 집안 진식구가 아무리 먹고파도 대감 안먹는다 아장 먹을 수가 엇거든. 아 집안이 다 굶거든. 그러나 그더서 전방지게 뛰어 노는 것은 파경이라. 그런 물색을 다 아니까, 그 죽은 똥안티,

“너네 집이 어떻게 근래 분분해서 음식덜도 안 먹고. 댐 고프지 안허여? 거 왜 그러냐?”고  
〔소사자 : 웃음〕

“하, 이거 시끄럽다고 말이여. 뉘 자파리도 조그많이 해라.집이 이렇게 걱정인디.”

“뉘 걱정이여. 2만씩헌 거. 뉘 내가 다 아는 걸,”

“이 새끼야 너가 안다던 뉘을 아느냐?”고 말이여,

“내가 몰라? (큰소리로) 내 모를 게 뉘인 줄 아느냐고, 오늘꼬지는 자기집에 내가 이제 거 지로써 일했지마는 머이든지 나에게 대보라고 말이여. 너까지것 뉘 글이고 뉘이고 내가 승리허고 말지 너안티 질 거 하나도 엇다.”고.

“아, 그러냐고 만약 네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안고 말고요? 내 모를 게 뉘 있어?”

“만약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하려는 그 아는 말을 해 주겠느냐?”

“너허고 인연관계나 맺으면 말 해주지?”

“아, 그러냐?”

제니, 이 지지빠이가 부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는 투로), 다른 동생 (뉘를 잘못 말함) 들은 모로우마는 그 지지빠이짱은 항상 가까이 놓고 말을 주고 받고 하간 글말도 해보니 아, 그삿 (보통) 아으세끼가 아니라. 보기에는 송악해 비치마는. 그러니 조끔 파경의 뜻을 아니까니, 지 (자기)도 좋아허주마는.

“아, 그러냐. 제난 부디 남광 인연을 맺고프냐?”

“너 (큰소리로 알보는 투로) / 부디 너허고 인연을 맺고픈 것은 아니다. 허나 사람이 물론성 장해 가민 인연도 맺는 거고, 너허고나 인연을 맺게 되민 내가 말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머 그 만 둔다”

하, 이젠 이 지지빠이가 그 파경이 녀석 허는 짓이 보기에 흉악허지마는 그 글말이나 뉘나 허 거 보민 혹 그런것도 암암적해서 춤 ‘이상헌 거지새끼다 (후жат말)’ 그 지지빠이 단칸도 못헌 거지주마는 ‘하, 이거 춤 이상헌 조식이라’고. 마, 머리에는 딱 이렇게 백혔지. 이젠 아버지안티 가서,

“자, 아버지 이렇게 항상 음식을 안먹고 누우문 어떤겁니까?”

“기 어찌냐?고 말이여 내가 알 도래는 없고 머 이니저리 허당 대동강물에 빠정 죽어분민 만 지 뉘.”

“아버지 / 나 험 말이 있습니다.”

“된 말이나.”

“사람이 죽음광 삶이 어떤니까?”

“저 어떤 말이나?”

“저 보기에겐 흉악하게 봐지던 저 파경이란 아이가 그깟 아이가 아닙니다. 게나저나 뭘 글말이든,된 말이든 헛자 난 그 아이를 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이 이렇게 음식도 안받고 막 집안이 분분해가니까 이 늙이 쟁송 거리까지 이, ‘야 뇌가 안 수가 있느냐’ 하니 자기 모를게 뭐 있느냐고 막 빙빙거리며 다닙니다. 가이를 불러서 그 의견을 받아 봄이 어찌코 다윈?”

“그리여? (깜짝 놀라며) 그게 빛을 알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글을 해도 아버지 보담 이상입니다. 아, 요놈의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니까 그깟 아이가 아니니까 불러 말해 보십시오.”

“그 존식 그리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알아 주겠다 허느냐?”

“저히고 인연이나 맺으면 알아주겠다 합니다.”

“에이, 빌어먹을 년, 보기싫다. 더저물던 그자 더저물지 그 거지 새끼하고 너 인연을 맺는단 말이나? 보기싫다고 내가 차라리 죽어볼지, 내가 그 거지사랄 허여? 듣구정도 안허다고 기억나라.”고.

아 이젠 훌 수 웃어. (기침) 호를 꿔고 사흔 꿔는 동안 속에서는 머 뒤틀리고 뺨 수 엇거른 살도런 엇고 허니까, 그 대감이 뭘 음식을 받아서야만 질 가족이 음식을 받게한다, 아 그 아버지 받지 안했는데 자진(막내딸은) 밥을 먹을 수가 없서. 배는 고프고 말이여 새츄로 그 아버지 안티 가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고집 부리십니까. 저 호나 아이 난 폭쳐서 만약 모르면 니 목아지 끊어불면 되는 거고 그리 고집할 거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볼 노릇이지 만약 뭘 허면은 저호나 아이 난 폭으로, 쇠술 적에 죽어분 폭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니, 그 대감도 아니치 아니서(아닌게 아니라) 먹지 아니하나 배는 고프고 아무리 생각을 허되 생각할 도리(방법)도 엇고 그 똥 말에 의해서,

“아이, 그럼 거 무관 이이라. 고 그럼 파경이 보내라.”고.

이젠 돌아와서,

“아버지가 오라고 허니까 가 보라고.”

이젠 이놈이 ‘거딱 거딱’ 갔어.

“대감님 절 부르십디가?”

“응, 불렀다. 머 그렇다고 봐서 뇌가 알겠다 허니까,내가 인규이언 하겠느냐? 내 죽은 똥사우 렵 것이니까, 도대체 뭐냐?”

“웃우나 뭘 [고개를 돌리며 아는 것도 모르는 지 하는 시늉] 후인식 행사허영 신부방에 가야 내 말 하겠습니까.”고.

하, 대감님이, 이 거지새끼가 적어도 대감이 인규이언 하하면 그 잘못된 되겨로되 이 거지새끼가 비쩍허인 이리니까 부애가 난단 말이여. ‘차라리 죽어볼지 그 돌아티 머…….’

“에이, 보기 싫다고 가라.”고, 하 이젠,

“날 보기 싫던 가라 웹쭈미는 암 자가 있어야지, 열매나(얼마동안) 봐 두면 후수웃어 또 부를 건디. [놀리는 어조]”

뒤, 파경인 뻔히 아는 거주기 [조사자: 아, 예./] 대감이 어떨건 뻔히 아는다. 그 죽은 똥안티 오란.

“날 2라 보기 싫던 가래(웃음) 날 가래 해붙민 어떻혀여./ 아매도 그거 알아야 밥도 먹고 허지, 안 먹으면 뻔 고파(비꼬는 톤)/”

[화자, 청자:웃음] 아, 이진 속 건드리는 소리만 허거든 아, 이젠 재촉로 그 지지빠이가 “흠 수 있습니까꼬 인연을 맺겠다 했으니 불문 태일해서 행사허십서. 행사허고 일어난 밥 잡습시. 밥 잡수고, 그 뒤 그 죽식 모르건 그자 2려불민(죽여 버리면) 말겁주며, 그렇게 헐 필요없습니다.”

아, 이젠 대감도 2만리 듣고 보니 춤 배는 고프고 말이여.

“거 무관 아이라고 말이여, 그러니 밤 가져오라고.”

술자이 나오고 밤도 나오고 허연 먹고 이젠 살아짐직 허니,

“곧 오늘이라도 행사허라”고 말이여. [조사자: 결혼식을?] 응.

“머 태일이고 머이고 치와불고 행사한다고.”

아, 이젠 머 그렇다고 그 날 허는 건 아이고 이 삼일 후에 딱 이제 행사해서. 이젠 날이 어 두우니까 신부방에 가게 댕어 부모님네가 완전히 허가해 똥이영 누우라고. 방에, 허갈 반안 들어 가게 되니까 떡 가 봤어. 허니, 마 앞엔 책상이 이렇게 (두 판을 벌리며) 있는데, 비몽간에 그 찻 사류이 아니니까, 비몽간에 눈썰매에 그 석함이 훑 몰아졌어. [조사자: 석함은 그 대감네 집 이 위 이신거봐?] 응 그렇지. [조사자: 아./] 아, 경허연 방에 들어가.

“그 석함을 가져오라./”

그걸 알아 올이라고 해서 대감안티 석함은 위임시켰으니까. [조사자: 아./] 그 석함을 책상에 띠 놓곤 이렇게 똑바로 정좌하여 (뚫어지게 보는 시늉) 있더니 눈썰매에 그냥 석함이 훑 몰아진 건 보니까 빙아리가 털 돌고 이렇게 (얕은 채로 두손을 방바닥에 대고 어깨를 굽으면서) 허고 있어. 현실을, 그 사류은 보니까, 빙아리가 털돌고 이렇게 있으니까 (좌우로 몸을 흔들거리며) [조사자: 움직이멍 마셈?] 응, 이렇게 존 잇단,

“그 권연(筆硯) 종이 가져오라”고.

종이 가져오니까 작첩 써서 ‘달이 머리를 못들어서 울질 못한다’ 라고 문법으로 착 션,

“이거라./”고.

허니 이젠 대감안티 가져다 드리니까,

“달이 머리를 들어 울질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뭐냐”

알 수가 있어야지. 뭐, 그대두고 이젠 그 부모님네도 허가하고 이러니까 말쑤틀 아기영 그날 밤 자고 허연, 뒷날은 그 대감이 나라에 가지고 가서,

“이거 알았읍니다.”

해서 글 션 붙이니까,

“이겁니다.”

허니 나라(임금)도 알 수 없거든.

“도대체 이 물건이 뭇인가?”

“과연 저는 모르겠읍니다”

“거 누가 헌 것이냐?”



“다른게 아니라고 나는 조선서 사신으로 왔는데 비단 아무리 소국이지만 관을 쓰고 다니는데 대국이라고 오고 보니까 이 사모를 걸러 들어 갈 수가 없다고 말이며, 관을 벗어야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억울함이 있느냐?”고.

흠계 들어가명 이, 요셋말로 그 정치인이란게 그걸 두들기는 판이주. (외교적 수단으로 먼저 선수를 치고 가다는 뜻)

“관을 벗어야 들어가게 되니까 어디 이럴 수가 어디 있는가?”

하니 이젠 문지기는 흠 수 옷이 천자또에게,

“아, 저니 어찌, 문밖에 어떤 백성이 오란 울어가기에 왜 우느냐고 하니까, 보니 한국서 온 모냥인데, 조선서 온 모냥인데 보니 뭐 놀각이 영(이렇게) 현(두 손을 머리위로 들며 걸다는 표시) 사모를 쓰고 오라서 비단 소국도 관을 쓰고 다니는대 대국이라 해서 오고 보니까 관을 벗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억울함이 있느냐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 그래여? 그러면 그 성문 찾하지 뭐(손으로 강력하게 휘저으며, (웃으면서) 그래서 문을 휘여 찾혔다 말이며.

“관이야 쓰고 오라야지 관을 벗고서 어디 올 수가 있느냐?”고 말이며

게난 성문을 휘여 찾힌, 이젠 가 턱 드러니깐(문체에 대한 답을) 거기서는 계란을 담은 보내긴 보냈는데 닭이 이 머리를 들지 못하여 울 째 못한다 하니 이게 빙아리가 되어신지, 월 빙아리가 되었는지 말았는지 깨고 보자고, 깨고 보니까 빙아리가 됐다 말이며 털 듯고. [ 조사자 : 아! ]

“하!, 그렇다.”고.

게난, 이, 비단 소국서 그렇게 손 휘 현 자가 갔다니 중국 문장당이 모연, 뭐 최문장이 이르고 서렸고 헛자 만날 최문장 인티 떨어지거든 그. 중국 문장당이 헛자 만날 떨어져 (비꼬는 투로).

“하, 이 새끼 살림 놈두면 못 쓰겠다고 지언 소국녀석말의 우리가 떨어지느냐 이걸 어찌 웃이(없애) 해 볼자.”고.

하니 한번은 문장당이 아주 투기심이 많은 줄 아니까. (최문장이 먼저 알았다는 뜻)

아, 건디, (문장이) ‘너가 늙다 내가 늙다’ 이런 판인테 최문장이 그 주인 보고 ‘나를 죽였다 해 달라!’고 해서 관 썬,

“관에 나 늙거든에 날 죽었다고 해 달라”고.

하니까, 아, 이젠 그리 허자고 해서,

“아, 최문장은 죽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이젠 중국 문장당이 오란 요셋말로,

“먼서(輓壽)나 우리 혼장 해 주자고. 신탐 우리가 믿어줬주마는 죽었으니까 최문장을 위해 춤만사나 짓자.”

해서 춤 아니치 아너서 죽으니까, 춤 존경해서 최문장을 선생으로 인세, 모션. 신탐은 인세 세심을 떠났다고 하면서 축하하는 뜻으로 인세 만설 지언 턱 걸어 놓고 문장당이 아잔 그 만서를 읊었어. 그 누었던 최문장은 관을 ‘툭’ 허게 치명 일어나.

“그만 허난 이젠 날 선생이엔 함신게 (비꼬는 투로).”

[ 조사자 : 아! 죽어야 날 선생이엔 함셴! ] 응.

“그만하면 날 선생이엔 허명 왜 그러냐.”고.

이젠 혼수 옷이 선생부하가 되고 맡았주게. [조사 : 아/그렇지 예/] 응.이만저만한 배짱이 아니었주게. 말론 곱게 이르게 해주마는. (조사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믿으며 그걸 확신하듯이) 하, 이녀석 살려뒀당 큰 일이 나겠따.”고. 헌디, 거 번썩, 그 후제사(後에야) 뻔히 안(세심 일을 모두 아는) 양반이니까 천자또의(에게) 말을 허되

“중국서, 이 대국서 누께가 세일 부재타 험니까?”

“아무사름이 쥬 부자라고 한다.”고.

“예. 그 부자침이 강 침이나 구경해시민(말 끝을 흐리면서).”

“거 좋다. 고 그 부자 부름테니까 가 보라고.”

거, 나라의 명령이라 그 부자를 불렀어. 불렀 허니깐 갔으나,

“이 양반이 중국서, 이 나라서 그대가 쥬 부자라 허니까 강 술 구경을 허고프다 허니까 강 구경 시켜드리라” 허니까,

“예, 갑시다.”

허연, 가니, 좁 부잔 부자라, 우선 가니 술잔이나 헌다고 그 동근가 있는다 뒤 귀퉁이가 요통 인가 ‘죽’ 썩어짜니 (손으로 비트는 시늉) 알려래, 잔더래 술이 ‘술술’ 나와. 거 요새 오무 짜(일어:인형) 모양으로 맨둔거주게 [조사자: 거 동근엔 헌진 사름이 아니고?] 아, 사름 모양으로 맨둔 건디, 이, 귀나 코나 툭 치민 이제 그 ‘조로로’ 허게 술 나오게 그 속에 술 담은 거라 말이여. [조사자: 아/ 어디로 나오는 거라 마썬] 이 (자신의 코를 지적하며) 찾구녕으로 물이 졸졸 나오니깐 헤 넣고(술잔에 술을 받아서) 이젠, 그 술 마시라고 하면서 술잔을 주고. 안준 보니깐 무슨 이상헌 배랭이 담은 안주라. 이 안준 뭇이냐? 허니 케수나무앗이라 허거든 흠 부재 양반이라 아주 술도 특다른 술이고 보기에 그렇게 해도 툭 치민 코로 흘린 물 같으지 마는 그전, 술통을 그렇게 맨둔 거고 안주는 배랭이 그또주마는 케수나무앗이라. 이러니깐,

“아무래도 부재내 집이라 좀 다르다고 그러냐 그 뭇을 보고 부재라 허는고. 부자 원인을 좀 보자고 한다.”

허니까 장고문을 죽- 읊어. 요새 우행 모양으로 누께안티 돈을 매여준(빌려준) 차용증서 그 문서. 그 책자만 죽- 허게 있는 거주.

“이걸 보고 부자라 험니다.”

“아, 그러냐.”고.

이젠 그 낭만은, 최문장은 하나하나 앓으면서 ‘죽죽’(손가락을 허어 맺다가 책장을 넘기는 시늉으로) 빙기면서 죽 봤어.

“아, 이 종이메길 보고 부자라 허는구나. 아, 알았다.”

고 했는디, 얼마 없어서 졸죽 문장덜은

“이놈 살려뒀 당 큰일 났다.”고.

모랴운 썩 가지고 책을 구성시켰어. 예, 죽게 맨둔양어, 죽이기로 이젠, 사형시킬걸로 이젠, 사형시킬걸로 이젠 허니까 분별 잘자는 어느 정도 뒤 책가 있어 그적이 아니라 문장들의 부기심으로 이러 것은 참고 허넹. 예, 모다가(모두가) 죽여야 된다고 책을 구성시키니 천자 혼자로 뒤 어쩔 수가 엇거든.

“어, 그거 우리가 여기서 처분하는 것 보담 중국에 어느 집(동의를 구하며) 풀두 웃고 물

도 웃고 아무런 돌맹이만 신 디(있는 곳), 춤 몰라도(말라도) 죽을 거주게(동의를 구하며), 아무 십이 귀양보내면 어쩔꼬?”

[조사자: 천자가?] 응. 그다가 귀양 보내볼뎌 바당물 가운데 돌맹이 이렇게(시늉) 있는 디. 무슨, 제가 굶어도 죽을 거니까, 허니 문장덜도 걸 뻔히 아니까

“아, 거 좋은 말씀입니다. 거 뭐 우리가 이더서 죽이고 말고 이럴 것 웃이 그더 강 제가 몰라도(말라도) 죽을 거니깐 그자 글로(거기로) 보내는 게 좋다.”고.이젠,

“불췌 그대는 이렇게 책책으로 인해서 하니, 어느 섬으로 귀양 살일 보내는 거니 그대는 안라.”고.

“려!”

해서, 이젠 그 섬으로 귀양 살일 갔어, 간 배아래 떡 내린 이렇게(양손을 무릅에 놓고 정차하여) 앉으니 강변으로 어떤 서녀(선녀)가 나오더니 무슨 소개 몽둥이(숨뿔치) 닳은 걸 하나 가져 오란,

“요 물을 뿔아 먹으멍 살았지민 살 수 있다.”고.

경이런, 그걸 뿔뿔 뿔아 먹으면 열도 앓고(출지도 앓고), 덥도 앓고, 고프도 앓고, 그자 춤, 아주 좋아. 허니 경 저영, 아마 혼 일 개월 가차와 가니까, 천주는 귀양 살일 보내긴 보내뎌 있을 수 엇다 이거여. 춤 재주가 워낙 좋은 사름이라 해서, 흐른(하루는) 그 문장덜 보고,

“그만 허든 이미 제가 몰라서 죽을테뤄. 죽엇일 테뤄? 거 죽고 산거나 알아보도록 누게 사람 보내는 것이 어쩔꼬?” 허니

“아,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고.

계일 어더 뺏눌 불리 가지고,

“배 탕 강, 가 보라고. 어뎡, 최문장이 볼랑 죽었는가? 아이 죽었는가?”

가고 보니깐 그전보다 더 좋게, 좋은 얼굴에 허영헌 고운 얼굴에 딱 허영 아잔. 이젠,

“가, 뵙니다.”

“거 어째 왔어?”

“천자또서 그자 안볼 알아보라고 해서 그자 왔읍니다.”

“음, 나 살긴 아주 그전 보담 편허면 좋아. 가서 그렇게 참고 허라.”고 아, 이젠 돌아오란

“뉘 죽유어랑마랑 얼굴이 더 좋게 아주 뉘, 이렇게 이십니다.” 이젠 천자가,

“안되겠다고. 어떤 사름이 아무 것도 엇는디 살 수가 싯냐?고. 이거 그갓 사름이 아니니까 빨리강 돌리오라야 되지 만약 이 사름을 처리한다 해서도 이 나라 큰 죄책이 되고 맘이. 허니 이걸 돌려오는 게 어째 하는가?”

이, 문장덜 보고 허니, 아 어쩔 수 엇거든 말이여, 즈기네문.

“어, 그러민 가 돌려읍니다.”

하지만 이 문장덜은 오던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즈기네가 꼴등질 헐 거니까 이젠, 최문장 테리러 가는 선원들을 불려 가지고,

“너 강 배 두 척을 해서 가되, 뒤의 배에 최문장 실린 오다시 그 배 참 밑바닥을 터주와시의 낭주적음(나무가지들) 찢러서 물 들지 말게 헛당 최문장 탕 오건 큰 대혜에 오기든에 천거리 쪽 동겨그네(당겨서) 글로 불들민 배가 풀라 앉일 건 사삼이주게(동의를 구하며) 그렇게 해서 최문장을 죽여두고 오라고 돈을 후허 준다고.”



“뭐 그러면 그리 허접다.”고,

춤 아니치 아녀서 이 최문장 태리레 간다고 해서 선원들이 배 탄, 배 두 척을 해가지고, 지네(자신들)도 타고 웬 간, 최문장은 그 배 혼 칩에 독선으로 모시니깐,

“거 어째서 나는, 이제 나 혼자 독선을 타게 되냐고?”

“예, 소연당이야 양반님광 그제 앓을 수가 있습니까?고 그래서 이제 독선으로 모시는 겁니다.”고

“응, 것도 그렇지. (고개를 모퉁이며 짤짤은 툼소리로)”

춤 큰 태리에 오니깐, 이것말이 춤 동기를 물어 들길 소심이란 말이어(동의를 구하며), 아, 케난 그자, 벋줄을 딱 끊어 테격두고 이놈들은,

“이젠 우리 동범이 장됐고 뭐.”

허멍 툼 떠는 디, 마침 이때는 춤이 들어서 올라 앉게 되자마자 남나 웃는고래 있다시 우긋 일어산 최문장을 태와 뉘 눈 깜박 할 이에(사이에) 완강한 도착해가지고, 흥너 이젠 뉘 죽음이랑 마당 뉘 선원당은 눈에 띄이지 않려지(눈앞보다는 누로). 그래서 뉘에 오러 내리니깐, 천조또애 간,

“뵙니다.”고,

“아, 선원당은 어떻게 어딜 갔는고?”

“마 어떻게 저디, 부일이 있어서 그자 천천히 온 겁니다.”

흥너, 아, 이 문장당은, 최문장을 죽이라고 해서 보냈단다, 죽원이랑 고사하고, 아 최문장을 오고 선원들은 안오너 왜 일인? 했다 말이어, 기영석영 선원당이 온 때를 기다리고 보나까 뉘, 오래여사 몽케여 (늘떡늘떡거리며) 들어와,

“아, 너네당은 어디 갔나왔느냐?”고.

“거 어떤 말고?”

“최문장 돌아오란…….”

“하이고 우린 이러저러해서 뒤집히 그 배가 침몰되지 죽은 걸로 인정하여 가지고 우린 후견히(편안히) 춤 오랐는데, 하이고 우린 가던 어딜 오랐다고 하련.”(웃으며)

말약에 우리 천자또가 갔자 뉘 최문장이 무슨 그 춤 천이당을 그 뉘 어떻게 죽이든 레도 어떻게 아무렇게나 내볼래. 경허언 이젠 갔는데, 춤 죽지 안려던 돌아간 삼안. 뵈일 언더서, 그 세에는(그 사이에는) 그 부재침이는, 불을 질러 부렸어. 그 춤 모든 사람이 중국 백성당이 그 억만금이 그 디(그 집) 문서에 있으니깐 문서를 불 부려볼만 뉘 아이(아니) 물어도 뉘 거 아니라제. [조사자: 아! 증거가 없어 안들어도 뉘 기다려] 응, 경허언 화쟁 민나서 그냥 진재산 다 소환 되부렸어. 그걸 뵈세 최문장을, 뵈세 그리 뉘 걸 알아서, 그 문실 전부 둘러보고, 이렇게 뉘 돌아오라지니까.

“아, 부자는 근래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이고, 뉘 말도 말라고, 뉘, 그 집 그냥 화재가 나서 장고내의 진재산 다 불 붙어 부니까 뉘 무슨 어디 뉘 뉘 어떻게 뵈이라고 할 수도 웃언 춤 그리 중국 앓을 부재가 생환이 그만이라.”고.

“하!/, 그렇습니까?고, 그러면 거 부자, 다시 뵈들야 뵈 수가 있느냐?”고

“제가 보니깐 종이때기에 갈 쉰 거 백인 엇입니다. 고, 거 다시 세 노민(농으면) 뉘 거 아님

니까?”고.

“아, 어떻게 매들어 낼 수가 있느냐?”고.

“제가 보니까 종이때기에 글 쓴 거백인 것입시다. 고, 거 다시 써 노민(눔으민) 될 거 아닙니까?”고

“아! 그럴 수 있는가? (큰소리로 깜짝 놀라는 모습)”고.

“뭐, 그 정도는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 아무 부자 부르라.”고.

부자 부르니 나라에 갔으니깐.

“아, 이 양반이 그대 집이 가서 문서 한번 돌려 봤는데, 예, 그대의 안부를 묻기에 화재나서 다 소화돼서 형편이 참 극난(極難)이라 하니 그, 부자를 다시 매들어 논다고 하니 어떤 일인지 난 모르겠다고 만이며, 하니, 이 양반 안티 서로 통해보라.”고 하니,

“하이고 그자, 선생님은 그 서류 한번 본 바는 있지만 그걸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그 정도는 내 자신 있지, 염려 말라.”고.

며 저번 때, 책자 들여다 보듯 착착착착착 빙기멍(시늉) 누구는 언제, 벅칠날, 열마차용! 똑 그 문서대로 죽 써(붓글 쓰는 시늉) 그러구선,

“붙어보라 고, 틀림없다.”고

뭐 요거 뭐 배략 강산이라. 아, 그 놈 살리다 보니, 중국서 돈 안 물어서, 이젠 되었다고 허단 보니 뭐 최문장 나오란, 뭐 다시 돈을 물게 마련이여(어이없이 됐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되자 최문장이 아무대도 그 사람이(최문장) 죽긴 죽는데, 저 북한지방에 최가의 종손이 살고 있는데 참 아니지 아니서 그 집이는 아주, 종가침이 아주 부자로 사는데 무슨 일거리가 잇쟁 허민 산돼야지가 나와서 흡똥다(소란스러이 돌아다닌다) 허여. 현디, 그 최가의 종가침이 마적단이 침입하게 된 무렵이다, 한 포수가 산에 간 돌아댕기다 보니 어떤 돼야지 새끼가 봐지니깐 총질 해 쏘았어, 그런데, 이놈이 죽을게 뭐여. 이놈이 흘락흘락 허영(도망간다는 뜻으로 시늉), 산에 사냥간 사람이 어디 불질소리(총소리) 나면 산짐승 맞혔는가 해서 이 사냥 덩기는 사름덜이 총소리 나는 데로 대개 모여들주기. (다음 이야기에 대한 준비로 이유를 미리 설명하며) 그 총소리에 다른 포수덜도 이제 오란

“아 어빙, 짐승 어떻게 됐느냐?”고.

“아, 돼야지 이래(이 쪽으로) 쏘는 걸 뒤 쏘아 봐야 죽들 안헌다.”고.

“아, 거 왜 죽들 아이 허느냐고 말이여. 에이 나도 그런 쏘아부다고 말이여.”

이고는 총 들러서 조름을 쫓앙 이거 뒤 아명 쏘아도 죽어야 말이지. 산에서 시골꼬지 그럭저럭 들구 불질(총질)허멍 오라가니 산에 포수들은 덩이다(다니다가) ‘하, 이거 어떤 불 적소리(총소리)가 나는가?’ 허연 모여모여 허는 게 포수가 거즘 삼십 여 명이 모아렸어. 예, 이제 시골 그 최가의 종가침이 날은 저물야 가는데, 그런 뒤 짐승덜이, 짐승이라고 해도 짐승이 아니니깐(낮은 툰으로 설명조로 하고) 날은 저물야 가는데 그 최가의 종손, 참 부재 침이니, 웬나리레 ‘흘락’ 튀어들언 그 우리 안으로 돼야지가 뛰어 들어가. 아, 이젠 온종일 그럭저럭 모여지는 게 포수 삼십 여 명이 모여져서 온 종일 돼야지 조름에만 눈이 빙글하게 된다 보니까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아, 이젠 할 수 웃이 포수들이,

“아, 이놈의 집이 부재침 2튼디 자 우리는 배도 고프고 할 수 있느냐고 이집 온타리 뛰어

들었 돼야지가 갔으니까. 우린 받아나 삼고 가자.”

“아 그렇다고.”

삼십 여 명이 이런 그리하자고 다 죽음이 되면. 가 하니, 이런 주인을 만나서  
“자 우린 오늘 이러저러 해서 아무 산중에서 한 번리를 해서 이제, 총 쏘아 봐도 죽진 아니  
고 해서 저 돼야지 조림에 또라 오더니 어 울타리 안으로 뛰어들인 후고 남은 저물고 배는  
고른다. 총 총 총로만 유(留)해 갈 수가 없느냐?”

흥니 이 주인은 불쌍 아는 거라.(천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죽기 신령이 화해 나서(변화해 나  
와서 그런다는 의미 생략) 그 뒤 이렇게 해서,

“아, 뭐 그러냐?”고.

[조사자:신령이 화해한 마쭈?]

응, 그 부재 그 산짐승 그 돼야지를 죽여 그 열기로 화한 최문장이며,

“그 돼야지 그렇게 눈에 띄었자 그 돼야지 총으로 쏘 봐야 죽진 안된다.”고

[조사자:그 돼야지는 게만 원래 그 최문장을 잡아갔던 그 돼야지가 마쭈?] 아니, 그 눈에  
떠인 뿐이지. [조사자:아, 예/] 그게 그깟 돼야지가 아니지. 예, 그래서(과자를 집어 먹으며)  
부재 그 집 주인은 그걸 참고 해서 그 집이 무슨 일이, 불행한 일이 나쁜 운만 나왔던 거라.

[조사자:아/] 지난 걸 참고 해서.

“그 돼야지 쏘아서 죽실 아니할 거라고 어서 올라 오지라.”고

해서 워낙 부재집이고 흥니, 하님, 종탄 보고 긴급히

“아주 이 손님들에게 음식한다서 다 잔 총리 드리라.”고

흥니, 뭐 주인이 명령이라 그 부름씨 허는 놀턴은 차차해서(준비하는 동작이 빠른 모양) 아니  
진 아니서 그 좋은 방안에 좋은 음식을 잔 해가지고 그 손님들을 ‘차’(빠른 모양) 대접하니  
까,

“하, 거 부재는 부재집인지 우리 삼십여명 식사를 이렇게 단순리 다 해서 대접을 이렇게 잔  
하여주니 총 반갑다.”

고 하면서 잔 먹고 이제 누웠어. 누운 밤중이 푹(아주 깊은 모양을 뜻함) 허더니, 어 난데없이  
마적단이 오듯, 큰잔이는 빛이 무장이 심(있을) 걸로 봐서 조호도 마적단이 오라서 총 후발  
‘뽕’ 허거든 흥니 포수들은 누운 자란 그 총소리가 나니깐,

“아, 여보 주인/ 이제 웬 일이요. 무슨 일로, 이런 총소리가 나니 이거 무슨 일인가요?”

니, 주인은 대답이,

“아마 마적단이 침입한 거 같습니다.”고 .

“아/ 그리여, 그러던 관계 있어? (웃으면서) 우리에게도 무장이 있으니깐 말이여.”아, 이  
젠,

“공, 다 일어나라.”

해서 포수들이 일어나기두서 아주 뒤 어기신 서너발 ‘뽕뽕’ 허니깐, 아, 저기서도 이런(역안  
을 갑자기 낮추며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준비를 예고 한다.) 이 부재침이는 그런 총살이  
나 무슨 무장들이 다 예심하여 있을 걸로 봐서 그 비밀을 알아보는 기주께.(천자에게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면서) 총(총살이 포수)논 길(침입에) 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공포로 이제 쏘  
는 거니.

이젠 마적단도 후 냇밭을 인세 ‘뽕뽕’ 쏘거든. 아, 여기선 만날 몫! 그자, 아 여기선 심어 밭 삼아 연밭로 쏘아대었다 딸이여, 마적단도 심어 밭 공포로 쏘아대니까 이제 이, 포수님이 “일체 다 쏘라.”고.

그냥 전장관이나 다름없이. (웃으면서) 이 쪽에 혼 삼십여밭을 (힘주어) 연밭로 막 외당당. 허허, 마적단이 왔다서 이 놈의 집인 부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재지마는 (부자들을 가서 도둑질 해오는데 상대인데) 갔당 당하지 못하겠다고 허연 가부리 (웃음). 허연 허니, 뒷날이 새여가나면 주인이 그 부름씨군담 보고

“아주 반찬이랑 질 래서 좋은 술 래서 저 포수님 살 데접하라.”고 지시허니, 뒤 주인의 명령이라 이젠 그 부름씨군담은 뭐 착착 나와 춤 좋은 술과 좋은 반찬 좋은 음식에 해서 한껏 춤 대접을 허여.

“아! 부재나간 권 잔 먹어지난 좋다.” (훈жат말)

춤 아니치 아너서 (아닌게 아니라) 조박 식사가 끝나니까 주인이 문문이나 가절 오란,

“대단히 당신들은 우리집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고 약소허나마 이, 그자 춤 뭘 허라.”고. 춤 부재칩이고 허니깐, 돈을 주니,

“아! 뭐 그런게 아니고 어쨌날 돼이지로 뵈였지마는 우리집이 무슨 일거리가 나젠 허던은 꼭 돼야지가 나의 험뜨는데 (늬뜬다, 현뜬다 : 난장판 치며 다니다.) 그러해서, 그 돼야지는 춤으로 쏘아도 죽는 돼야지가 아니라고. 즈기네 조상 그 신령님이 화해서 뵈 건디 간 밤 마적단이 친번허게 되니깐 즈기네 조상이 나와 험뜨서 포수를 모여다 뵈 그 마적단을 방비허게 된 것 이라고 그러해서 이 약소허나마 감사의 은혜를 내 갚으는 것이다.”

해서, 허허 (웃음으로 상황이 재미있음을 표현).

아, 그러자 이젠 포수 삼십여 명이 돌아오자,

“아무 최가의 집이는 춤 도적이 침입허젠 흥면은, 그런 조상이 나와 험뜨서 그딱 뭘 그럴 도 식도 들질 못한다.”

허니, 그 집인 원 그 부재칩이 그딱 도둑도 안들어 (단정 지으며 기이하다는 걸 청자에게 주시 시킴). 예, 뭐 그런 뵈이 있주. 허허허허. 겨난 이제 최가 보문 ‘금돼야지 새끼, 금돼야지 새끼’ 허다는 것은 본래 산돼야지 영기로 화하여 가지고 최문장을 낳고 그 계통으로 만약 집이 어떤 일이 있젠 허던은 돼야지가 나와 험뜨서 허니깐은 “금돼야지새끼” 라고 조상, 뭘 무시개 얘기를 허주. [조사자 : 아! 겨난 그 집안은 최문장 증손이 뵈는 거라미썬.] 응. 증손님 증손, 저 북한 지방에서 최가의 증손이 워낙 부재로 사난디 그 집이 갔당 뭘 그렇게 뵈 거주. [조사자 : 아! 겨문 중국에 가서 나중엔 어떻 뵈수가?] (과자 집어 먹으며) 응, 거 돌아오왔주께. 간 조금 이렁구 저렁구 조금 부일 보고 그냥 나왔주께. 돌아오란 허니깐 춤 아니치 아너서 증손님 이렁 살탄, 물론 그 사문도 죽긴 죽은 거주께. [조사자 : 허언에?] 응. 경허언, 최가의 증손이 북한 지방에 있다고 허주.